



세계가 인정하는 “名作의 아름다움”

무대 위를 사뿐사뿐 누비고 뛰어오르는
발레리나의 고혹적인 몸짓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우리 몸이 그토록 유연하고 아름다울 수 있음을
명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30년의 오랜 전통을 이어오며 오로지 우리 몸의
아름다움을 먼저 생각하는 '명작 임플란트'

 **straumann**



즐거움 치과생활

Fall & Winter 2008



Seoul Dental Association

역사산책 _ 사적 여행을 통해
역사를 돌아보다

Wannabe Dentist +
치과의사를 꿈꾸는 젊은이들

Dental +
Common Sense

1. 임신기 및 영유아기의 구강관리
2. 자연 치아 살리기

Audi Prestige

아우디가 말하는 사람됨



신뢰의 이름 -
 아우디 **Gojin Motors** since 1999
전시장 강남 Showroom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92-9 Tel: 02-516-2468 수원 Showroom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491-1 Tel: 031-241-0033
 대치 Showroom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8-2 Tel: 02-567-3344 광주 Showroom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49-3 Tel: 062-525-8777
중고차 사업부 서초 Showroom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17 서울 오토갤러리 금관 2층 Tel: 1588-0145

선·수·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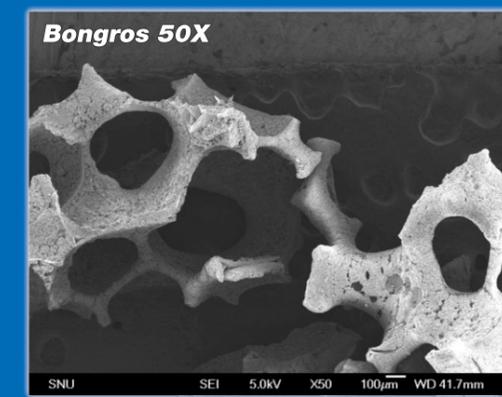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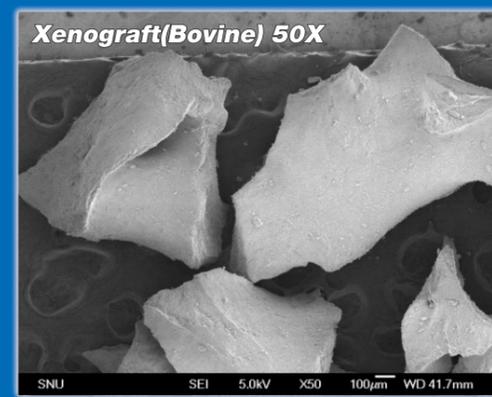
완벽하게 안전한 순수합성골
본그로스로 선수를 바꿀 때입니다



국내특허 제 10-0401941호 국내특허 제 10-0460685호 미국특허 7,037,867



다음 기공구조 중 어떤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본그로스를 선택하는 이유

1. 입체적으로 연결된 300 μ m의 균일한 기공들로 혈관조직 성장에 최적
2. HumanBone과 동일한 70% 이상의 기공율로 신생골 형성에 최적
3. 광우병 및 간염, AIDS와 같은 감염 우려로부터 100% 안전

전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본그로스의 기공 구조

본그로스의 기공구조가 발표된 2000년 Biomaterials 논문은 지금까지 전세계적 학자들에 의해 129편의 SCI급 논문에 인용되었습니다.
 출처: Web of Science, 2008년 7월 현재

치과사업부 02-550-8439



Vol. 147
Fall & Winter 2008

CONTENTS

즐거운
치과생활

- 8 | 연혁
- 9 | 인사말
- 10 | 견치아동
- 11 | 2008 치아의 날
- 12 | Art People Flower Photographer 임운경 원장
- 14 | 나눔을 실천하는 치과의사 파라다이스 덴탈캠프
- 18 | Journey 용인 호박등불마을
- 22 | Dental CF 기발한 치과 관련 광고들
- 24 | 치아에 좋은 음식 버섯 두부 스테이크 · 해초 샐러드
- 26 | Cartoon
- 27 | 치과상식 임신기 및 영유아기의 구강관리
- 38 | DENTAL CSI 미스터리의 이집트 여왕 하트셉수트
- 40 | 역사산책 사적 여행을 통해 역사를 돌아보다



24



12



40



18

검색창에서 이세탁스 검색 를 쳐 보세요

동화약품

잇몸 치료와 양치를 동시에!



편리한 잇몸약 —
이세탁스® 페이스트

아픈 잇몸에 직접 작용하는
치약 타입의 편리한 잇몸약입니다.

이세탁스페이스트는 항균작용이 있는 3가지 천연생약성분이 잇몸질환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직접 억제하며 치약성분이 배합되어 하루 두 번 양치질로 편리하게 잇몸질환을 치료합니다.

▶ 잇몸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들

- 잇몸이 쉽게 붓는다.
- 잇몸에서 피가 난다.
- 잇몸 염증이 생긴다.
- 입안에서 냄새가 나고 입맛이 나쁘다.
- 음식물을 씹을 때 통증을 느낄 때가 있다.
- 잇몸과 치아가 분리되어 틈이 생긴다.



※양치가 어려우신 분들께 이세탁스 액도 좋습니다.

<수입완제품>

Vol. 147
Fall & Winter 2008

CONTENTS

즐거운 치과생활

- 46 | Dental Kids 하마의 이빨
- 48 | 즐거운 치과의사 연극을 사랑하는 치과인의 모임, 멘탈씨어터
- 52 | Movie Character 해적들의 치아도 고르고 예쁘게!
- 54 | 새로운 치과 치료법 컴퓨터를 이용한 심미치료
- 62 | 세계 속의 치과 박물관 헨리 포만 옛킨슨 치의학 박물관
- 64 | Wannabe Dentist 치과의사를 꿈꾸는 젊은이들
- 67 | 자랑스런 치과의사 지현택 박사
- 70 | World Tour 양코르 와트 유적지
- 76 | True & False 치아 건강 상식 7가지
- 78 | 치과상식 자연 치아 살리기
- 84 | Photo News
- 85 | Dental News
- 86 | 편집후기
- 87 | Editor's Letter
- 88 | 3M Lava



3M Lava™

지르코니아 크라운 & 브릿지

자연치, 그 이상의 아름다움

3M 라바는 3M 특허기술의 지르코니아 블럭(Lava™ Frame)과 초정밀 컴퓨터 시스템(Lava™ CAD/CAM System)을 사용하여 자연치에 가까운 인공치아를 제작하는 치과 심미 치료 시스템입니다.

**3M Lava™ 지르코니아 크라운 & 브릿지로
아름답고 건강한 치아를 오래도록 간직하세요.**

지르코니아란?

지르코니아는 뛰어난 강도를 가진 현존 최고의 생체친화적 소재로, 인공관절 등의 주요한 용도로 오랫동안 사용되어온 고급 소재입니다.

한국쓰리엠주식회사

치과제품사업팀
TEL : 02)3771-4128
<http://www.3m.co.kr/dental>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연혁

- 1925 경성치과학교 제 1회 졸업생이 배출돼 함석태·안중서·김용진·최영식·박준영·조동철·김연권 등 7인이 친목단체 성격의 한성치과의사회(회장 함석태)를 조직함.
- 1942 조선총독부의 방침에 따라 한국인만으로 조직되었던 한성치과의사회는 10월 1일 일본인 중심으로 조직됐던 경성치과의사회와 통합, 창립총회를 갖게 되었으며, 그 명칭도 경성치과의사회로 부르게 되었음.
- 1945 해방 후 순수한 한국인으로만 회를 운영하여 오다가 12월 16일 명칭을 한성치과의사회로 개칭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음.
- 1946 12월 22일 회 명칭을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용진)'로 개칭함.
- 1952 당시 국민의료법 제 5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가 설립되고 5월 18일 제 1회 정기총회(창립총회)를 개최함.
- 1953 1945년 해방 후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무의촌을 순회하며 구강검사 및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이 행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6월 9일을 기해 구강보건주간을 설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기로 하였음.
- 1958 본회 기관지 '치과회보' 창간.
- 1960 11월 4일 종로구 낙원동에 소재한 치협회관에 본회 사무국을 개설함.
- 1971 치협이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회관을 신축, 이전함에 따라 본회도 함께 이전함.
- 1987 본회에서는 매년 구강보건행사 기간(6월 9~15일 : 1주일간)을 맞이하여 '제 1회 치과인문화제'를 세종문화회관 전시장에서 개최함.
- 1990 '치과회보'의 내용을 개편하여 환자와 함께 보는 '즐거운 치과생활'을 매월 1회씩 발행하게 되었음.
- 1993 치협에서 현재 위치한 성동구 송정동 소재 현 회관의 구입을 결정함에 따라 본회에서는 이와 관련, 12월 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현 회관으로 입주하기로 결정함. 9월 본회 기관지 '서치뉴스'를 창간하였고 공보처의 인가(94년 10월)를 받아 매월 2회씩 발행함.
- 1994 12월 6일 성동구 송정동 소재 현 회관으로 이전입주함.
- 1996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사(70년사) 및 서울치과지도(Dental Atlas)를 발간함. 소년·소녀가장 무료진료 결연사업을 대국민 봉사 역점사업으로 추진함. '즐거운 치과생활' 매년 1회씩 개편호 발간.
- 1997 서울시치과의사회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www.sda.or.kr]
- 2000 9월 본회 기관지를 '서치신문'으로 변경하고 격주로 발행함.
- 2001 6월 제 1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 (Seoul International Dental Exhibition 2001) 개최.
- 2003 1월 본회 기관지를 '치과신문'으로 변경하고 4월 전국배포를 실시함. 6월 구강보건주간을 맞아 장애인과 함께 하는 시민걷기대회와 제 2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 (Seoul International Dental Exhibition 2003) 개최.
- 2004 6월 제 2회 장애인과 함께 하는 시민걷기대회 개최. 10월 제 5회 치과인 문화제 개최.
- 2006 6월 치아의 날 기념 '치아사랑 시민걷기대회'와 제 4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 개최. 9월 '치과신문'을 주간으로 발행.
- 2007 '즐거운 치과생활' 연 2회 발행. 6월 '치아사랑 시민걷기대회' 개최. 12월 '제 1회 치과신문 광고대상' 시상식 개최.
- 2008 6월 치아의 날 기념 서울 시민 무료구강검진 및 걷치아동 선발대회. 제 5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 개최. 올해로 창립 83돌을 맞는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는 산하 25개 구회, 4천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음.

즐거운 치과생활

2008년 가을 · 겨울호
통권 147호

• 발행처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81-7
Tel / 02-498-9142~6
Fax / 02-498-9147
www.sda.or.kr
E-mail / news@sda.or.kr

• 발행인 최남섭

• 편집인 이민정

• 공보위원 최병갑, 김방수,
박인임, 강명신, 조정근,
유영주, 이한주, 최성백

• 학술이사 김덕

• 편집부 최학주, 김영희,
엄태원, 양주희, 김준호

• 광고 신동언, 송재창
Tel / 02-498-9142

• 제작 리즈디자인
Tel / 02-3462-5554

• 사진 보물섬 IC

• 인쇄 (주)서진인쇄

즐거운 치과생활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치과가 여러분 곁으로 한발 가까이 다가갑니다.

치과의사와 시민들의 거리를 좁히고, 치과를 찾는 발길을 한결 가볍게 해줄
'즐거운 치과생활 2008 가을 · 겨울호'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1년에 두 번, 치과의사와 환자가 함께 볼 수 있는
'즐거운 치과생활' 발간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치과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치과의사들의 세상사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았습니다.
특히 이번호부터는 임신기부터 노년기까지 일생 동안의 치아 관리 방법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 연재를 준비했습니다.
건강한 구강관리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첫 걸음, 함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4천여 치과의사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지난 6월 9일 치아의 날을 맞아 서울 전 지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구강검진을 실시해
구강검진의 중요성을 알린 바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무료진료 등에 앞장서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로서의 역량 강화는 물론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매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에 따뜻한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치과생활'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독자 여러분과
책이 완성되기까지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주신 편집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장 최남섭



건강한 치아 예쁜 미소

서울시치과의사회가 6월 9일 치아의 날을 맞아 올해의 건치아동을 선발했다.
금상을 수상한 어린이들을 만나 수상 소감과 건강한 치아 관리법을 들어보았다.

진행 • 김준호 / 사진 • 이진혁



『즐거운 치과생활』 표지모델로 환한 미소를 자랑한 구남초등학교 4학년 정지민 어린이는 웃는 모습이 유난히 귀여운 학생이다. 건치아동선발대회에 대표로 나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다는 정지민 어린이는 막상 금상 수상까지 하게 되니 놀랍기도 하면서 매우 기뻐했다고 한다. “우선 부모님께서 무척 자랑스러워 하셔서 기분 좋았고요, 친구들이 많이 축하해줘서 고마웠어요.” 평소 치아 관리 비결에 대한 질문에 정지민 양은 꼼꼼한 칫솔질이라고 대답했다. “어머니께 배운 대로 하는 건데요. 칫솔을 돌리면서 윗니 아랫니를 골고루 닦고, 잘 안 닦이는 부분까지 마무리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허도 깨끗하게 닦고요. 아! 그리고 전 플라는 안 마셔요. 어머니랑 할머니께서 해주신 음식이 제일 맛있거든요. 그래서 인스턴트 음식도 많이 안 먹는 편이에요.” 전 세계 소식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는 정지민 어린이는 건치아동 금상을 받은 만큼 앞으로 친구들에게도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항상 예쁜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치아를 잘 관리할 것이라고 한다.

『쑥스러운 듯 살짝 웃는 모습이 매력적인 정준식 어린이는 소의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으로 우연한 기회에 학교 대표로 건치아동선발대회에 나가고, 금상까지 받게 되어 기분이 얼떨떨했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학교 보건선생님의 추천으로 치과에서 검진을 받은 후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정준식 어린이는 평소 특별한 관리보다는 칫솔질을 꼼꼼하게 하는 것이 비결이라고, “앞니 먼저 닦고, 안쪽도 잘 닦아주고, 앞니 뒤쪽도 신경 써서 닦는 편이에요. 칫솔을 세워서 싹싹싹, 그리고 허도 깨끗하게 닦고... 하루에 3번은 교박교박 칫솔질을 하고 있어요.” 음식 또한 평소 가리지 않고 잘 먹는 편이고, 급식 때마다 나오는 우유는 빼놓지 않고 마신다. 건치아동선발대회에서 금상을 받은 만큼 앞으로 더욱 잘 관리해서 건강한 치아를 가진 멋진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정준식 어린이의 소망이 이뤄지길 함께 기대해 본다.

『건치아동으로 선발된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3·3·3만 잘 지켜도 누구나 건강한 치아 예쁜 미소를 가질 수 있다. 하루 3회, 식후 3분 이내, 3분 동안 칫솔질. 자, 지금부터라도 기본에 충실해보자!』



무료
구강검진
및 상담

서울시치과의사회는 6월 9일 치아의 날을 맞아 시민 누구나 서울에 소재한 치과에서 무료로 구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무료 구강검진 및 상담' 행사를 실시했다. '치아사랑 시민견기대회'를 통해 치과인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를 진행해 온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올해는 기존 방식과 다르게 '무료 구강 검진 및 상담'을 통해 시민들이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느끼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구강검진 및 상담 시 시민들이 작성한 구강검진표는 식습관과 칫솔질 습관, 구강 이상 증후 등을 파악하여 국민 구강검진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구강 건강 증진은 물론 치과 의사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도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어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이번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건치아동
선발대회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한 '건치아동선발대회 및 구강 보건상 시상식'을 개최,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알렸다. 건치아동선발대회는 올해로 63회째를 맞는 전통 있는 행사로서 아동기의 치아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매년 실시되고 있다. 학교 구강검진을 통해 구 대표로 선발된 건치아동 후보 중 치과 의사 심사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금상, 은상, 동상 남녀 각 1명씩 6명을 최종 선발하였다. 제 63회 건치아동 금상은 소의초등학교 5학년 정준식 어린이, 구남초등학교 4학년 정지민 어린이가 선정되었다.





남아프리카나 오스트레일리아
폴스 서부 지방에 피는 '캥거루 포'

사각 프레임 안에서 더 아름답게 피는 꽃

Flower Photographer **임운경** 원장

“사진하면서 도움을 얻은 것?
자연과 함께 하다 보니 건강에 좋고 늘 즐겁게 사는 것이지...
꽃 사진은 누구라도 좋아하잖아요.
꽃 사진 찍는 일은 지금도 참 잘 했다고 생각해요.”

진행 • 김준호 / 사진 • 이진혁



그는 한창 작업 중이다. 예약 환자가 없는 오전 시간. 치과 안에 마련된 작업실은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맞추어 분주하다. 얼마 전 짐바브웨(Zimbabwe)에서 찍은 디지털 동영상 편집 작업이 진행 중이다. 장마가 시작되던 6월 어느 날, 인터뷰를 위해 찾아가던 기자와의 첫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꽃 사진 30년, 은퇴할 나이에도 끊임없이 사진 공부하는 치과의사’란 수식어가 어울리는 임운경 원장. 그의 사진 활동은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진료를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생각하다가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진을 시작했다. 폭포의 비경을 카메라에 담는 것에서 시작된 사진 인생은 길가의 꽃들을 촬영하면서 본격적인 꽃 사진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처음에는 국내의 꽃 위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979년도에 잠시 들른 대만의 한 숙소 뜰에 피어있던 빨간 하이비스커스(hibiscus)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아, 이젠 세계의 꽃으로 눈을 돌려보자’ 싶더군요. 그 당시만 해도 꽃 사진 전문가는 거의 없었고, 해외 촬영은 더욱 쉽지 않았어요. 그 때부터 지금까지 1년에 두세 번 정도 미리 계획을 세워 아내와 둘이서 외국으로 작품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1979년 당시 그는 한 가지 목표를 정했다. 10년 뒤에는 한국꽃사진회를 조직한다는 것이었다. 사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꽃 사진에도 분명 흥미를 가질 거라는 생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된 사람들과 연락해 정보를 모으는 등 갖은 노력을 다 기울였다. 그리고 1989년, 그의 소원대로 딱 10년 만에 3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한국꽃사진회를 탄생시켰다. 이후 회원은 80명까지 꾸준히 늘어났다고 한다. 계획하고 노력한 대로 이뤄지는 그였지만, 사진을 시작하던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다.

독학으로 사진을 배워 처음부터 슬라이드 필름으로만 찍다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았지만, 하나하나 끈기 있게 이겨나갔다. 그러다가 슬라이드 사진 콘테스트에 ‘꽃 파는 여자’라는 작품을 출품했는데 동상에 입선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었다는 기쁨과 이때 얻은 자신감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슬라이드 사진 작품을 시작하였다.



은검초(Silver Sword)



리플레시아

Flower Photographer



케이프타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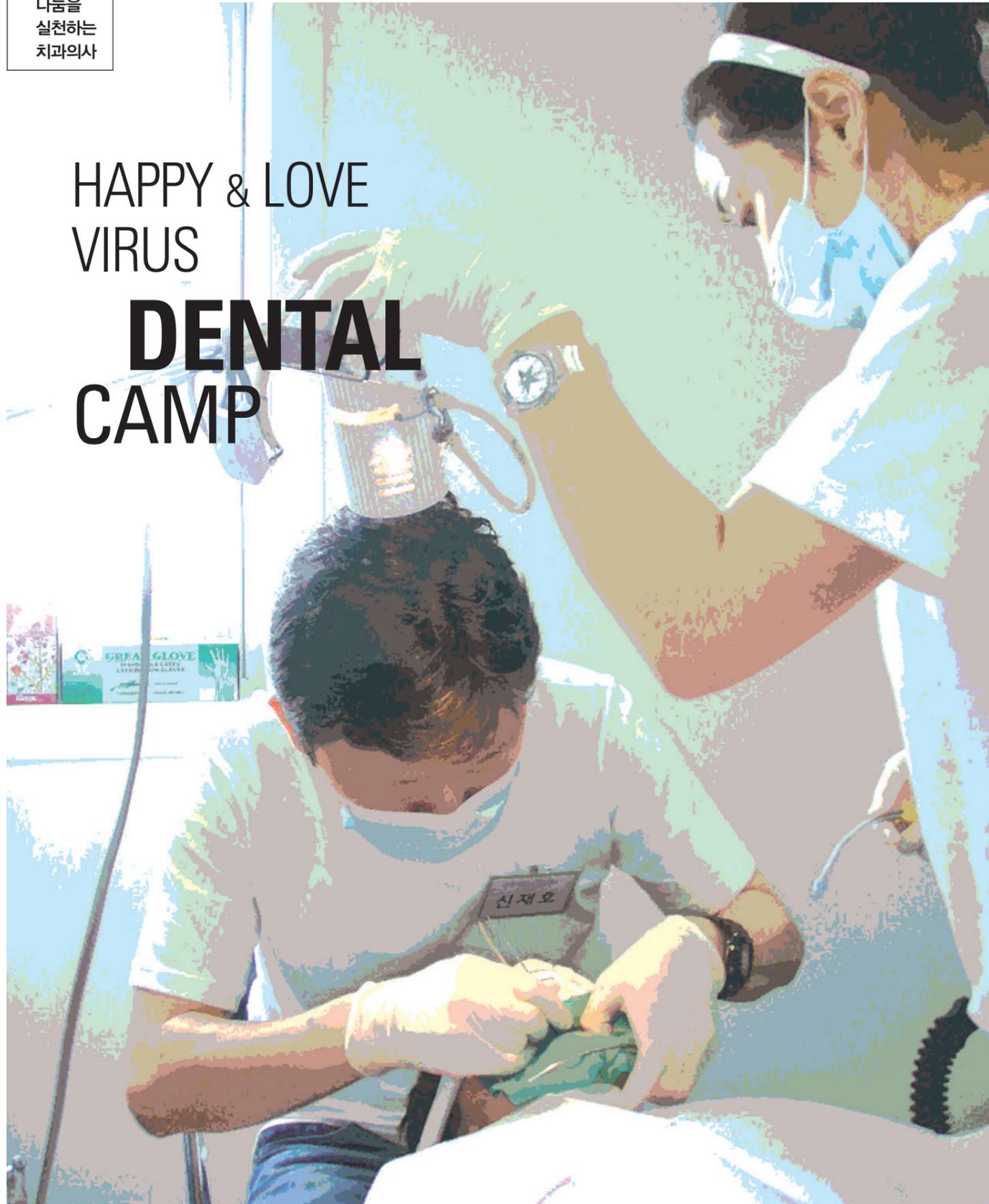
무주 구천동 계곡

“순간의 예술인 꽃 사진을 완성하기 위해선 같은 장소에 서너 번 방문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어렵게 찍은 사진일수록 기억에 오래 남아요. 인도네시아 남쪽 정글에 피는 세계에서 제일 큰 꽃인 ‘리플레시아’와 하와이의 할레아칼라 화산 3천 미터가 넘는 곳에서 꽃이 피는 ‘은검초(Silver Sword)’, 그리고 남아프리카나 오스트레일리아 폴스 서부 지방에 피는 ‘캥거루 포’ 등은 쉽게 잊지 못할 풍경들입니다.”

현재 그는 한 사진 잡지에 16년 동안 연재했던 ‘꽃 사진 여행촬영’과 ‘꽃 사진 촬영 테크닉’을 2권의 책으로 출판하는 것과 꽃 사진 보급을 위해 비디오로 촬영한 영상물을 DVD 타이틀로 제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영상물 작업의 경우 6~7년 전부터 배운 제작프로그램으로 디지털 비디오 동영상들을 음악선정부터 자막 작업까지 하고 있다. 그간의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담긴 자료들을 인계받아 관리하면서 운영해 줄 젊은 사람이 없어서 무척이나 아쉽다는 그는 사진에 관심 있는 치과의사들이나 일반인들에게 국내외에서 출판된 책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 깊이 있는 사진을 찍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사각 프레임 안에서 더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을 보면서 오늘도 사진에 대한 열정을 꽃피우고 있을 임운경 원장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HAPPY & LOVE VIRUS DENTAL CAMP



행복을
나눠요!

사랑을
전해요!

파라다이스 덴탈캠프

대부분의 진료봉사가 발치, 보존 치료 등 기본 진료의 한계를 넘어서기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임플란트, 틀니 등 치과 진료의 모든 것을 제공하는 봉사 단체가 있어 화제다. 장애인 생활 시설을 중심으로 진료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파라다이스 복지재단의 '덴탈캠프'가 바로 그곳. 지난 여름 장애인 이동 치과 진료팀이 거제도 장승포에 위치한 애광원으로 진료봉사를 다녀왔다.

파라다이스 덴탈캠프(회장 신재호 원장·이하 덴탈캠프)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8년째 진료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격주로 장애인 생활시설에 방문하여 구강검진부터 신경치료, 치주질환 진료, 보철(틀니) 제작 및 장착, 임플란트 등의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치과종합병원 수준의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오랜 장애인 치과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의료 봉사를 하고 있다. 또한 30여 명의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장애인을 위한 나눔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다.



DENTAL CAMP

덴탈캠프는 지난 여름 거제 애광원과 부산 장애인 그룹홈을 방문해 3박 4일 동안 228명에게 총 330건의 진료를 실시하였다. 이번 진료에서는 글라스 아이오노머 충전, 복합레진 충전, 아말감 충전, 스케일링, 발치, 근관치료 등을 시행하였고, 치과의사 4명, 치과위생사 12명, 치과기공사 1명, 치위생과 학생 13명 등 총 30명이 참가하였다. 특히 문 밖 출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은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가 하면 가사실습실을 개조한 임시 진료소에서는 오전 9시부터 진료를 시작해 밤 11시까지 각자의 봉사 활동에 최선을 다했다.



“장애인 진료 경험이 풍부하고,
사랑과 열정이 넘치는
덴탈캠프 선생님들 덕분에
애광원에서도 장애인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어요”

덴탈캠프의 진료봉사에 함께 참여하여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했던 애광원 의료팀장 진성에 씨는 밤낮없이 장애인들을 성심껏 진료하는 의료진의 모습에 무척 감동받았으며 내년에도 꼭 다시 와 줄 것을 당부했다. 애광원 부원장 박진희 씨는 우선 장애인 진료 경험이 풍부하고, 무엇보다 사랑과 열정이 넘치는 덴탈캠프 선생님들 덕분에 애광원 선생님들도 장애인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며, 장애인들이 손쉽게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 각계의 관심과 온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덴탈캠프 신재호 회장은 덴탈캠프가 다른 봉사단체와 차별화되는 이유에 대해 기업이 함께 하고, 보철 진료도 완벽하게 제공한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진료했던 환자들의 리콜 진료도 실시함으로써 일회성이 아닌 꾸준히 봉사를 실천한다는 마음가짐 또한 차별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많은 업체나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을 주는 상황이라 진료팀원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에 전념하고 있다”며 봉사 활동은 바쁜 일상 속에서 오히려 에너지를 재충전시켜주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한다. 이번 진료를 기획·지원한 파라다이스 복지재단은 2005년과 2006년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파라다이스 덴탈캠프팀을 파견하여 울란바토르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료한 바 있으며, 올해는 중국 연길시 특수학교 학생들을 진료할 계획이었으나, 중국의 국내 사정상 진료가 여의치 않아 국내로 선회하여 거제도 애광원을 선정했다고 한다.

Tip!

파라다이스 덴탈캠프는 의료지원사업, 장애인 관련 단체 지원사업, 장애 이동을 위한 보조공학, 학술연구 사업 등 장애와 관련된 특화된 전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홈페이지(<http://dental.isori.net>)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덴탈캠프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구강관리 자료개발과 대국민 홍보활동, 전국적인 협력 병원 및 장애인 전문 치과진료단과의 진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진료서비스로 계속 정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오렌지 빛
큰 통꽃이 예쁜

용인 호박등불마을

태어난 고향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시골집에 대한 아련한 꿈이 있다.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 아래 들성들성 보이는 초가지붕 위, 얽힌 넝쿨 사이로 오렌지 빛깔의 호박이 인사하는 그런 풍경 말이다. 무더웠던 한여름 더위를 벗어버리고 알록달록 옷을 바꿔 입는 가을, 소소한 정취가 곳곳에 묻어나는 용인호박등불마을로 길을 나서 보자.

진행 · 양주희 / 사진 · 김도훈



용인호박등불마을에 가려면...

교통편

승용차 : 경부고속도로 한남IC →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부산방향) → 경부고속도로 판교IC → 판교TG
 → 능평삼거리에서 신갈/수원 방면 우회전 → 정몽주선생묘소 방면 좌회전 → 한국등잔박물관/용인호박등불마을(도착)
 홈페이지: hobak.go2vil.org

테마가 있는 곳, 호박등불마을

용인시 모현면 안골마을에 조성된 '호박등불마을'은 호박과 등(등잔)과 불(숯가마) 세 가지를 테마로 삼아 농촌의 전통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주민들이 각자 경작하고 있는 호박 종류가 워낙 많고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호박도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호박을 테마로 체험마을을 조성하게 되었고, 마을에 있는 '한국등잔박물관'과 호박을 이용한 숯가마 등을 연계해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테마마을로서의 면모를 갖췄다. 1만 2천 평 정도의 텃밭 중 호박은 7천~8천 평이다. 나머지는 감자를 심어서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험장으로 만들었다. 또한 고구마, 옥수수 체험 텃밭도 만들어 두었다.

마을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이곳에서 재배하고 있는 호박은 무려 40여 종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관상용 화초호박(한 가지에서 여러 종류가 열리는 호박으로 노란색, 녹색 등이 있다)을 비롯하여 어른들이 선호하는 맷돌호박(늙은 호박), 단호박, 맘모스호박 등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단호박은 일반 시장이나 마트에서 볼 수 없는 종류로, 일반 단호박보다 당도가 10배 정도 높다고 한다.

또한 호박등불마을에서는 호박을 이용한 호박등 만들기 체험부터 공방에서 아이들이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숯대, 공예품 만들기, 활쏘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감자를 캐거나 오이, 호박을 따는 체험 농장에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일절 농약을 뿌리지 않는다고 한다. 자연 상태 그대로를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건강한 땅에서 자란 농작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계절에 맞는 꽃과 과일을 심어 연중 내내 체험 학습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저온보관 창고를 지어 맷돌호박의 연중 판매도 계획 중이다.

용인호박등불마을은 전형적인 시골의 모습을 보여 주면서도 분당, 죽전과 인접해 있어 도시에서 가을 여행을 떠나기에도 아주 가깝다. 한해 농사의 정성이 노랗게 익어가는 호박등불마을의 노력은 이제 시작일 테지만, 우리 아이의 손을 잡고 온 가족이 시골 마을의 정취와 함께 아롱아롱 맛있는 호박과 즐거운 한 때를 보내는 것도 좋겠다. 🍂

Tip!

호박 예찬

박과에 속하는 1년생 덩굴식물인 호박은 예로부터 식용과 약용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 애호박은 주로 나물이나 전, 찌개 등의 음식으로, 늙은 호박은 떡, 엿, 죽 등으로 먹었으며 호박잎은 찌서 쌈으로 먹기도 한다. 전분질이 많고 칼로리가 고구마의 절반 정도여서 다이어트식으로도 알맞다. 늙은 호박의 황색을 나타내는 베타카로틴은 암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고, 비타민 C와 E도 풍부하여 뛰어난 항산화 작용을 한다. 인, 칼슘 등이 풍부해 치아 건강에 좋으며, 철분, 비타민, 섬유질도 많아 혈액순환과 피부미용에도 좋다.

Dental

때로는 황당하게,
때로는 즐겁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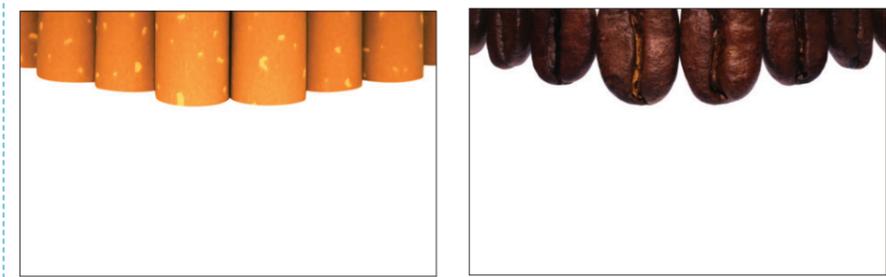
기발한 치과 관련 광고들

TV를 보다 보면 그 어떤 드라마나 영화, 예능 프로그램보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광고! 광고 속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우리를 웃게 만든다.

센스 만점 아이디어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광고들...
즐겁고도 재미있는 아이디어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보자.



푸른 자연,
흩어지는 바람 따라 물결치는 나무들...
어라? 바로 칫솔 위에 예쁘게 짜 올린 치약이네...
눈까지 시원해지는 치약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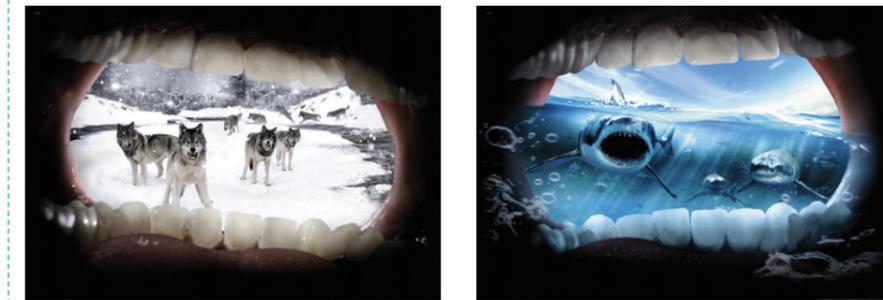
담배, 커피 원두...
기호식품을 통해 치아 변색이 잘 된다는 점을
광고 이미지로 활용한 예.
재미와 공익적 내용을 담고 있는 치약 광고.



←
치아 미백이 얼마나 잘 되길래...
탄광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며
불 꺼진 거실에서 독서도 가능하단다.



←
이 제품만 사용하면 정말 저렇게
튼튼한 치아를 가질 수 있을까?
무거운 가방도, 아기도 문제 없이 들 수 있다니.
하지만 턱관절에 이상이 생기지는 않을까?



←
동굴 같은 입 속은 어떤 모습일까?
와~ 치아 뒤도 정말 깨끗한데,
깨끗하고 건강하게 고른 치아를 위해~
잇몸까지 관리해 주세요!



←
웬 바나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시라.
바나나 껍질 색이 이상하지 않은가?
노란 바나나마저도 하얗게 바꾼다는
치아 미백 관련 광고다.

←
이미지 출처 [http://dvdprime.dreamwiz.com/bbs\(gilsunza\)](http://dvdprime.dreamwiz.com/bbs(gilsunza))

CF

버섯 두부 스테이크

재료 표고버섯 3개, 느타리버섯 한줌, 양송이버섯 4개, 두부 반 모, 야채 한줌
표고버섯 양념(간장 1/2큰술, 정종 1/2큰술, 물 1큰술, 다진 마늘 1/2큰술, 꿀 1/4큰술, 참기름 약간, 후추 소금간 약간, 화이트 와인 1큰술, 발사믹 식초 1큰술, 식용유 2큰술)
만드는 법

1. 표고버섯은 밑동을 잘라 불순물을 제거하고 표고버섯 양념에 조물조물 재워둔다.
2. 두부는 조금 두툼하게 잘라 그릇 하나를 눌러 물기를 빼둔다.
3. 물기 빠진 두부는 소금을 앞뒤로 솔솔 뿌리고 기름 두른 후라이팬에 단단하게 튀기듯이 부쳐낸다.
4. 느타리버섯과 양송이버섯은 밑동을 잘라내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먹기 좋게 잘라 기름 두른 후라이팬에 볶으면서, 화이트 와인을 돌려 향미를 돋운다.
5. 양념에 재워 둔 표고버섯은 자르지 않고 통째로 구워낸다.
6. 그릇에 두부를 올리고, 버섯을 차례로 올려 야채로 마무리하고, 발사믹 식초를 돌려 서브한다.

* 맛과 영양, 은은한 향까지 일품인 표고버섯에는 칼슘과 인의 흡수를 촉진시켜 치아와 뼈 형성을 도와주는 비타민D가 많이 들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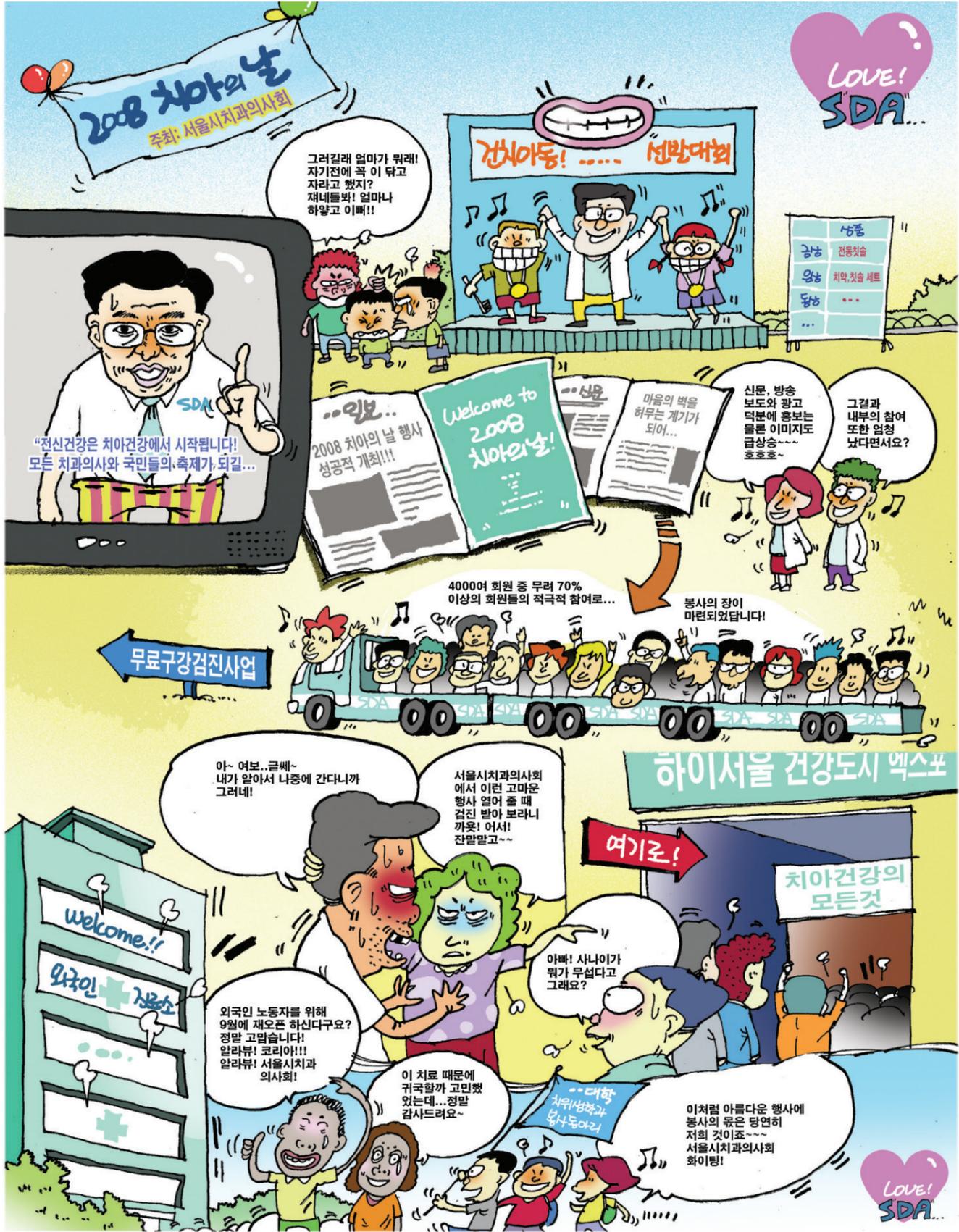
해초 샐러드

재료 : 샐러드용 해초- 미역 톳 100g, 천사채 한줌, 산딸기 1/2컵, 겨자소스(튜브형 연겨자 1/2큰술, 설탕 1큰술, 식초 1큰술, 소금 1작은술)
만드는 법

1. 샐러드용 해초는 먹기 좋게 잘라두고, 천사채는 물에 잘 씻어 둔다.
2. 산딸기는 즙을 내서 천사채를 담가 둔다.
3. 산딸기 물이 든 천사채를 그릇에 담고, 그 위에 샐러드용 해초를 올린다.
4. 겨자소스는 미리 만들어 냉장고에 차게 두고, 함께 서브하거나 먹기 전에 뿌려서 맛을 더한다.

*천사채는 그냥 먹어도 되지만, 포도즙이나 산딸기 즙을 내서 물을 섞으면, 영양학적으로 훌륭한 뿐 아니라, 보는 즐거움을 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미역은 우유와 견줄 정도로 칼슘 함량이 많아 골격과 치아형성에 좋은 음식이다.





dental
common
sense



健齒一生

나이에 맞는 치아관리

'건강한 치아로 건강한 일생'을 사는데 꼭 필요한 시기별 치아관리를 6회에 걸쳐 연재한다. 이번 호에서는 아장아장 우리아기를 위한 '임신기 및 영유아기의 구강관리'에 대해 알아본다.

- 1 영유아기 | 건강한 치아를 위한 첫 습관
- 2 소아기 | 영구치의 예방관리, 초기 우식증 치료
- 3 청소년기 | 영구치열의 완성, 적절한 교정치료
- 4 성년기 | 정기적인 스케일링, 심미치료
- 5 장년기 | 손상되거나 결손된 치아의 수복
- 6 노년기 | 전신건강을 고려한 치과치료

[건치일생] 태어나서부터 노년기까지 건강한 치아로 행복하게 살자.



임신기 및 영유아의 구강관리

유영주 공보위원

* 작년에 결혼한 새내기 주부 이사랑 씨는 기다리던 임신 소식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부실한 치아 때문에 자주 치과 치료를 받으며 고생한 경험이 많았던 터라 태어날 아기에게는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고 싶다. 어떻게 관리해주면 좋을까?

임신기간 중 구강 관리

- * 가능하면 임신 전에 치과 검진을 받고 필요한 치과 치료를 미리미리 받는 것이 좋다.
- * 칼슘이 풍부한 식습관
임신 6주 무렵부터 태아의 치아 싹이 생기기 시작한다. 치아의 단단한 부분을 구성하는 성분의 대부분은 칼슘, 인 등의 무기질이므로 태아의 튼튼한 치아 발달을 위해서는 충분한 칼슘 섭취가 필수.
- * 항생제 사용이 필요한 경우 테트라사이클린 복용 주의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되어 아기의 치아에 진회색의 착색을 유발할 수 있다.
- * 규칙적인 양치질 습관 유지
임신기에 임산부에게 자주 발생하는 임신성 잇몸병을 예방할 수 있고 출산 후 유아들에게 양치 습관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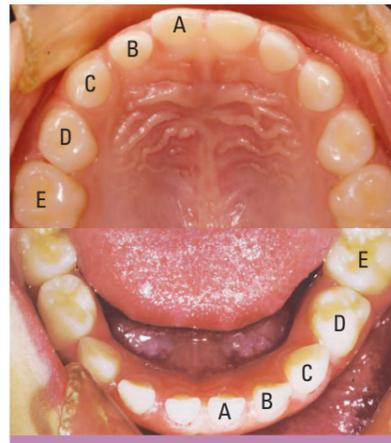
* 칼슘 섭취에 좋은 음식
우유, 요구르트, 뼈째 먹는 생선, 우렁이, 굴, 대하, 두부, 계, 호두, 미역, 쥐눈이콩 등



[영 · 유아기의
구강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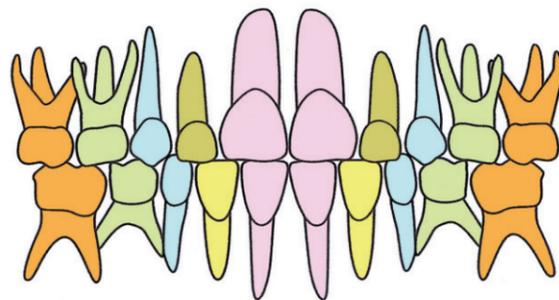
① 유치가 나오는 순서

* 보통 만 3세 정도면 20개의 유치가 모두 나온다.



유치가 나는 순서
A-B-D-C-E

- A: 유중절치
- B: 유측절치
- C: 유견치
- D: 제1유구치
- E: 제2유구치



- 6~10개월 앞니
- 8~13개월 앞니
- 10~16개월 앞니
- 16~23개월 송곳니
- 13~19개월 어금니
- 23~33개월 어금니

어린이의 치아

* 건강한 유치는 음식을 씹는 기능, 잇몸 뼈, 턱 뼈의 성장, 발음 등 발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중에 빠져버릴 치아라고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건강한 유치열
치아 사이 사이 공간이
있는 것이 정상이다.



만 3~4세경 방사선 사진
턱뼈 속에 이미 영구치가 보인다.

* 드물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이가 나있거나(선천치), 태어나자마자 이가 나는 경우(신생치)도 있다. 큰 문제는 없지만 수유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치과의사와 상담 후 뽑을 수도 있다.



선천치

[영·유아기의
구강관리

② 영유아기의 효과적인 양치질 방법

- * 치아가 나기 시작하면 가제수건, 손가락, 실리콘 칫솔 등을 이용해서 치아, 혀, 볼 안쪽, 잇몸까지 닦아준다. 이때 치약은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거즈로 닦아 주는 모습



엄마가 양치를 시켜주는 모습



실리콘 칫솔



아기용 칫솔



소아용 칫솔,
치약 및 칫솔 홀더

- * 양치질을 하나의 놀이처럼 받아들이게 하면 규칙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는데 도움이 된다. 부모님의 이를 닦아보게 한다든지, 인형으로 양치질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 어금니가 나면 어린이용 칫솔로 어른들이 닦아주어야 한다.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소량 사용하거나 물로 닦아주면 된다.
- * 양치질을 혼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되었어도 마지막 마무리는 어른들이 꼼꼼하게 해 주어야 한다.
- * 어려서부터 식사나 간식 후에는 바로 양치질하는 습관이 몸에 배도록 한다. 특히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도록 지도한다.
- * 치실을 사용한다.
어금니와 어금니가 맞닿아 있는 부분에는 쉽게 음식물이 끼어 칫솔질로도 잘 제거가 되지 않아 충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수시로 치실을 이용하여 어금니 사이에 있는 치태, 음식물 찌꺼기 등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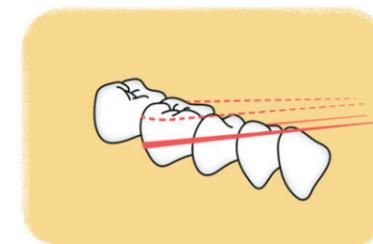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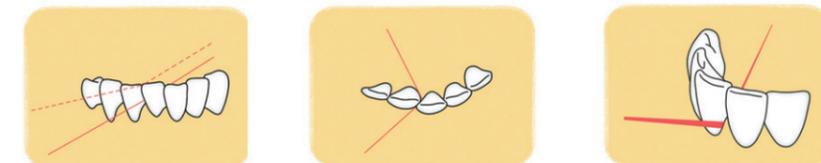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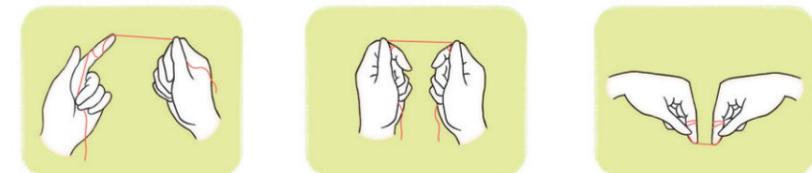


인접면 우식증



방사선 사진

* 올바른 치실 사용방법





[영·유아기의
구강관리

③ 정기적인 치과검진의 시작

- * 만 1세 무렵 치과검진을 받기 시작해서 6개월에 한번 정도 정기적으로 치과검진을 받도록 한다. 충치의 예방과 조기발견에 도움이 되고 치과의사로부터 올바른 구강관리 방법, 바른 식습관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④ 우유병 충치의 예방

- * 잠들기 전에 우유, 요구르트, 주스 등을 넣은 젖병을 입에 물고자는 습관이 있는 경우 앞니 전반에 걸쳐 한꺼번에 여러 개의 심한 충치가 발생하는 소위 '우유병 충치'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
- * 젖병을 물린 채로 재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우유를 먹고 나서는 물로 입가심을 하거나 가제수건으로 앞니의 보이는 부분을 닦아주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젖병을 문 채로 자야한다면 우유 대신 물을 넣어준다.
- * 만 1세 이후에는 젖병 사용을 중단하고 컵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턱뼈와 치열 발달에 도움이 된다.



우유병 충치

* 영유아
무료 구강
검진제도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5세 이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서 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1차(4개월), 2차(9개월), 3차(18개월), 4차(30개월), 5차(만 5세) 등 5회에 걸쳐 시행하게 되는데 치과 검진은 3차와 5차에 해당하는 시기에 가까운 지정 치과 병·의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볼 수 있다.

18개월에는 치아들이 정상적으로 나와 있는지, 만 5세에는 충치검사와 턱뼈의 성장에 이상이 있는지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다.

⑤ 손가락 빠는 습관의 교정

- * 만 3세 이전의 어린 아이들이 손가락을 빠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아이들은 태내에 있을 때부터 손가락 빨기를 시작하는데 출생 후에도 손가락을 빨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다고 한다.
- * 만 4세 이전까지의 손가락 빠는 습관은 정상적인 것으로 이후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 * 만 4세 이후에도 손가락 빠는 습관이 지속될 경우 턱뼈의 성장이나 치아 배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치과의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손가락 빠는 모습



손가락을 심하게 빠는 습관으로 생긴 굽은살



손가락 빠는 습관으로 인해 앞니가 위 아래로 벌어진 상태



영·유아의
구강관리

6 불소를 이용한 충치예방

- * 불소를 치아의 표면에 작용시키면 치아를 단단하게 하여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전혀 충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아니며 충치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고 이미 생긴 충치가 더 이상 심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데 의미가 있다.
- * 불소의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치아 주변에 항상 존재하도록 정기적으로 도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 * 불소를 사용하는 방법은 먹는 방법과 바르는 방법이 있다. 치과의사와 상의하여 아이의 연령과 협조도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먹는 방법 불소보조제, 불소화된 수돗물

바르는 방법 불소용액이나 불소젤 또는 바니쉬를 치아에 발라준다.

임신기 및
영유아의
구강관리

7 올바른 식습관 형성

- * 4대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여 치아와 치아 주위 조직의 성장발육을 돕는다. 특히 단 음식을 피하고 인스턴트 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이용한 식사와 간식으로 충치 발생을 예방한다.
- *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아예 제외시킬 수는 없지만 간식보다는 식사를 통해 설탕성분을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 * 끈적거리는 형태의 단 음식을 먹을 경우 설탕 성분이 입 안에 오래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 탄산음료나 이온음료보다는 물을 마시도록 한다.
- * 씹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 단단한 느낌의 야채나 과일을 먹는 습관을 기른다. 어려서부터 너무 부드러운 질감의 이유식이나 간식에 익숙해지면 씹는 힘이 발달되지 않아 성장기 편식의 원인이 된다.
- * 음식의 양념은 싱겁게 한다. 너무 진한 단맛, 짠맛에 익숙해지면 점점 더 자극적인 맛을 원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건강관리에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임상사진제공 · 대한소아치과학회

세상을 뒤흔든 그녀를 깨우다 미스터리의 이집트 여왕

하트셉수트



고대 이집트 역사상 가장 비범하고
절대적 권력을 지녔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여왕이 있다.
이 수수께끼의 여왕에 대한 기록이나 기념물은
모두 철저히 파괴되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왜 그녀는 역사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것인가...

현대인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던 여제의 흔적은
20세기 초 어느 날, 잠자고 있던 한 미이라의
치아를 통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Hatshepsut



Tip!

하트셉수트는 누구?
투트모세 1세의 장녀로, 이복형제인
투트모세 2세의 왕비이다.
조카인 투트모세 3세가 왕위를 계승하면서
22년 동안 섭정을 했다.
조각이나 벽화 속에서 파라오 복장에
턱수염까지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 그녀는
사후에는 결국 투트모세 3세에 의해
모든 기록과 이름이 지워지는 수모를 당한다.



1903년 왕들의 무덤 속에서 정체불명의 미이라가 발견되었
다. 이 무덤은 발견 당시에는 그 정체도 알려지지 않았고 아무런
장식도 되어 있지 않아 100년 가까운 시간동안 방치되다시피
했다. 이 미이라의 신원을 밝히는 데에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된
것이 바로 치아 하나와 일부 남아있던 DNA였다. 정체불명의 미
이라를 하트셉수트로 확인시켜 준 것은 요란한 도구나 장치가
아니라 치아 하나였다. 과거 이집트 여왕이었던 하트셉수트와
관련된 나무박스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동물의 이빨이 발견되었
다. 이 이빨을 정체불명의 미이라에 맞추었다니 정확하게 그 자
국이 맞았다고 한다. 또한 DNA 분석 결과 미이라가 된 여인과
아모스 네페타리라는 18세기 왕조 혈통을 이어받은 여제가 가
족적 연관이 있다는 게 확인되었다. 이 두 가지 증거는 정체불명
의 미이라가 하트셉수트라라는 사실을 입증하게 된다. 그렇지

만 유력한 증거로 판단하기에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데 미이라의 형상이 가슴 부분에 양손을 십자로 겹친 채 누
워있는 전형적인 모습과는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왕가의
장례 풍습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하트셉수트 사후
에 벌어진 통치 흔적 말살 작업에 따른 결과라고 본다면 미이라
가 다른 형태를 취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물론 이
미이라가 하트셉수트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CT 사진을 통해
하트셉수트로 추정되는 이 미이라는 사망 당시 50세 정도의 나
이였으며, 매우 비만 상태로 치아상태도 상당히 나빴던 것으로
밝혀졌다. 어디까지나 추정이지만 하트셉수트는 당뇨병을 앓
았고 온 몸에 퍼진 골암(뼈에 퍼지는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
인다. **한**

참고문헌: [미스터리의 이집트 여왕 하트셉수트] - 크리스티안 데루슈 노블쿠르

사적 여행을 통해 역사를 돌아보다

2008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국보1호 승례문을 잃었다. 복원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지만,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국보, 보물, 사적, 문화유산 등은 어느덧 과거의 용어로만 남아 있다. 도심 곳곳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들을 돌아보고 역사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본다.

진행 · 김준호 / 사진 · 김도훈



幸州山城

경기도 고양의 서남쪽 끝 한강 연안에 위치한 행주산성은 덕양산(德陽山) 7~8부 능선에 축조된 토성으로 둘레는 약 1km정도이다.



서오릉

서삼릉의 경내에는 3원과 46묘, 태실 54기가 있다.
3원 중 소경원은 소헌세자의 묘이고, 의녕원은 의소세손, 효창원은 문효세자의 묘이다.



**분묘 장식의
미학,
서오릉과 서삼릉**

사적 제 198호인 서오릉은 풍수 지리학상 길지로 왕실 가족의 능이 있는 곳이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경릉(敬陵: 덕종과 소혜왕후의 능) · 창릉(昌陵: 예종과 인순왕후의 능) · 익릉(翼陵: 숙종 왕비 인경왕후의 능) · 명릉(明陵: 숙종과 계비 인현왕후, 제2계비 인원왕후의 능) · 홍릉(弘陵: 영조 원비 정성왕후의 능)의 5능을 일컫는다. 이곳에는 5능 외에 명종(明宗)의 첫째 아들 순회세자(順懷世子)의 순창원(順昌園)과 장희빈(張禧嬪)의 대빈묘(大嬪墓)도 경내에 있다. 조선 중기의 왕릉이 넓은 터에 위치하고 있고 삼림욕을 해도 될 만큼 울창한 나무 사이로 경내 분위기는 조용하고 차분하다. 이곳은 조선시대 건축 구조물의 형태와 미학적인 분묘 장식들을 살펴볼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 사적 제 200호 서삼릉은 고종(高宗) 원년에 예릉(睿陵)이 들어서면서, 효릉(孝陵: 인종과 인성왕후의 능) · 희릉(禧陵: 중종의 계비 장경왕후의 능) · 예릉(睿陵: 철종과 철인왕후의 능)의 3능을 일컫는다. 서삼릉의 경내에는 3원과 46묘, 태실 54기가 있다. 3원 중 소경원은 소헌세자의 묘이고, 의녕원은 의소세손, 효창원은 문효세자의 묘이다. 원래 왕릉에는 후궁, 왕자, 공주의 묘를 들일 수 없으나 일제 강점기에 멸망한 왕실의 묘를 집중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모아둔 것이다. 특히 서삼릉의 영역에 후궁, 왕자, 태실을 공동묘지 형태로 만든 것은 왕실의 권위와 존엄을 낮추려는 일제의 의도된 책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서삼릉 능역은 일제 강점기에 신사 참배 장소로 만든다는 이유로 훼손되기도 했고, 태를 담아두었던 항아리를 반출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다. 현재 서삼릉은 희릉과 예릉과 의령원, 효창원 등 4개의 능만 볼 수 있다. 왕가의 태를 묻어 둔 곳이라는 태실과 조선 왕조의 황혼을 겪으며 생을 마친 위친왕 묘소 등 나머지 묘들은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살아 숨 쉬는
역사,
행주산성**

행주산성은 덕양산(德陽山) 능선에 축조된 토성으로 둘레는 약 1km정도다. 1593년 권율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왜군을 크게 물리친 행주대첩 전적지로 유명한

곳이다. 선조 25년(1592) 이치(梨峙)에서 왜적을 격멸한 권율은 정병 2,300명을 거느리고 한강을 건너 덕양산에 진을 치고 서울 수복을 노렸다. 이때 왜군 총수 우키타 히데이에에는 3만여 병력으로 공격해왔고, 권율은 치열한 접전 끝에 크게 무찔렀다. 바로 이 행주대첩이 충무공의 진주대첩, 한산도대첩과 함께 역사에 길이 빛나는 임란 3대첩이다. 현재 당시에 설치했던 목책(木柵)성터가 산허리에 남아 있는데, 삼국시대의 토기 조각이 출토되는 것을 보면 조선시대 이전에도 중요한 군사기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이 대첩에는 부녀자까지 전투에 참여하여 치마폭에 돌을 날라 석전을 하였고 그 치마를 행주치마라 한다. 선조 36년(1603)에 세운 행주대첩비와 1963년에 다시 세운 대첩비가 있으며, 1970년 대대적인 정비공사를 통해 권율의 사당인 충장사(忠莊祠)를 다시 짓고 정자와 문을 세웠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주산성은 담을 쌓고 토성의 형태를 보존하고는 있지만 남아 있는 터가 거의 없고 현대적인 시설물과 공존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 행주산성은 담을 쌓고 토성의 형태를 보존하고 있지만 남아 있는 터가 거의 없다.



서삼릉



명륜당

처마는 서까래 위에 각진 부연(浮椽)을 덧달아 놓은 겹처마로 구성되었다.



조선시대의 지방교육기관 향교

고양시에는 태조 7년(1398)에 고양 문묘라 하여 창건한 향교가 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3년 후 재건하였다. 향교 내에 지어진 건축물 중 명륜당, 전사청(典祀廳), 외삼문 등은 6.25전쟁 때 불에 탄 것을 1984년에 신축했다.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으로 이루어진 강당으로 홀처마에 팔각 지붕이다. 명륜당의 양측에 있는 동재와 서재는 오늘날의 기숙사라 할 수 있다. 대성전은 공자를 비롯한 5성의 위패만 봉안되어 있는데,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이고 지붕은 맞배지붕, 처마는 서까래 위에 각진 부연(浮椽)을 덧댄 겹처마로 구성되었다. 향교에 남아 있는 건물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사청은 제례 때 전사관이 집무하면서 제사 준비를 점검하는 곳으로, 이곳 고양향교에서는 매년 음력 8월 27일 공자의 탄신일을 맞이하여 석전대제를 봉행하고 있다.

고양시에는 태조 7년(1398)에 고양 문묘라 하여 창건한 향교가 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3년 후 재건하였다.

권력의 무상함, 고려 유적의 현재

사적기행을 통해 지나간 역사의 흔적을 되짚아보니 '그나마 조선왕조의 유적은 보존 상태가 괜찮은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다음으로 찾은 고려 공양왕릉에서 역사 속의 승자와 패자 관계가 현재까지 이어져오는 듯해서다. 이 왕릉은 고려의 마지막 왕인 34대 공양왕과 순비 노씨의 능이다. 공양왕은 이성계 일파에 의하여 옹립된 허수아비 왕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는 재위 4년 만에 폐위되어 원주로 쫓겨났고 공양군으로 봉하여 강원도 삼척에 옮겨가 조선 태조 3년(1394) 그곳에서 50세의 나이로 생을 마쳤다. 그 뒤 태종 16년(1416)에 공양왕으로 추봉하고 봉릉하였다. 봉분 앞 상석 뒤에 서 있는 비석은 봉릉 당초의 것으로 보이며 왕과 왕비의 능 중간에 조선 때 세운 것으로 보이는 '고려 공양왕고릉'이라 새겨진 비가 세워져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바로 공양왕릉이 고양시와 삼척시 두 곳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는 조선이 개국하면서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에 대한 기록이 허술해져서 정확한 왕릉 고증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일까? 고양시에 위치한 공양왕릉은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었고 풀들이 무성했다. 다음으로 고려 후기의 명장이자 충신인 최영 장군의 묘(경기기념물 제23호)를 찾았지만, 이곳 역시 이정표 하나에 의존하고 있어 찾기 쉽지 않았다. 조선 왕조의 유적과 비교했을 때 '패자는 후대에서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라는 권력의 무상함을 느끼게 했다.

오늘 역시 내일이면 '과거이자 역사'가 된다. 문화재의 가치는 희귀성, 가치성, 시대성 및 학술성 등의 요소들이 복합되어 결정된다고 한다. 보존하고 계승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는 역사와 함께 호흡하며 진정한 문화적 자산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공양왕릉



최영 장군의 묘



향교



하마 얼굴 속에 숨겨진 송곳니

쉿! 조심하세요.
하마도 맹수랍니다~!

하마는 귀엽다.
하마는 친숙하다.
퐁퐁한 몸에 커다란 입은 캐릭터로 만들어질 만큼 인기가 많다.
순해 보이는 얼굴속에 강력한 송곳니를 숨기고 있는 하마의 진실을 찾아 떠나보자.



분류	
소목	하마과
종수	2속 2종
생활방식	하마-20~30마리 또는 그 이상의 무리를 지어 생활 애기하마-단독생활
크기	하마-몸길이 3.7~4.6m, 어깨높이 약 1.5m 몸무게 3~4.5t
체색	하마-다갈색, 애기하마-회색을 띤 검은색
생식	하마-임신기간 227~240일 애기하마-임신기간 201~210일
수명	하마-40~50년, 애기하마-20~40년
서식장소	하마-호수 · 하천 · 늪 애기하마-산림의 습지대
분포지역	하마-아프리카의 사하라사막 이남 애기하마-라이베리아 · 시에라리온 · 코트디부아르



Hippopotamus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동물 중 하나인 하마에게 친근함을 느끼는 것은 바로 하마가 초식동물이기 때문이다. 육상 동물 중 코끼리와 코뿔소 다음으로 큰 덩치를 자랑하는 하마는 수영도 못하면서 일생을 늪이나 호수에서 보낸다. 먹이를 찾을 때만 육상으로 올라오는 하마는 단체생활을 하는 동물로, 둥글둥글 뽕뽕한 외모와 달리 성격이 난폭하여 초식동물이지만 맹수에 가깝다. 풀을 먹는 이 초식동물은 큰 몸집 때문에 땅 위에서 살기 어려워 물 속에서 새끼를 낳고 젖까지 물 속에서 먹인다.

특히 60cm에 달하는 송곳니는 다른 육식 동물들은 물론, 동족까지도 죽일 수 있을 만큼 위협적이다. 하마의 대표 무기인 거대한 이빨은 현존하는 포유류 중 유일하게 두꺼운 악어가죽을 찢어버릴 정도로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 무는 힘 또한 세다고 알려진 백상아리의 악력보다 훨씬 강하다. 보통 무는 힘이 3톤 정도로 추정되는 하마의 이빨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코끼리나 고래 이빨보다도 강하고 총알조차 관통하지 못할 정도다. 실제로 하마와 악어가 공생하는 곳에서 인명 피해의 주범은 대부분 하마다. 그래서 같은 공간 안에서 생활하는 악어와의 공생 관계는 동물학자들의 영원한 숙제이기도 하다. 악어는 하마의 공간을, 하마는 악어의 공간을 존중하면서 생활하고 웬만한 일이 아니라면 서로 상대의 새끼를 공격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공존의 불문율은 아프리카 건기에도 어김없이 지켜지고 있어 두 동물의 생물학적 공존의 비밀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온순함 뒤에 감춰진 야성, 진정한 맹수 하마는 오늘도 초원의 늪에서 목욕을 즐기고 있을 것이다. 🐘

연극을 통해 세상을 만나다.
연극을 사랑하는 치과인의 모임, **덴탈씨어터**



연극은 세상에 대한 이해이며 소통이다.
자만심으로, 때로는 진료 스트레스로
잃어버린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의 추다.

덴탈씨어터(이하 연사모)는 1999년 창립공연 '세일즈맨의 죽음'을 시작으로 올해 6월 '늙은 부부 이야기' 까지 총 11편을 무대에 올리고 있는 치과인들의 모임이다. 기성 극단들의 작품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는 평을 받고 있는 연사모의 만원기 대표를 대학로에서 만났다.

진행 · 김준호 / 사진 · 김도훈

“대학시절 연극 동아리에서 활동하던 치과의사들끼리 공연 한번 해보자고 해서 시작된 모임이에요. 특별한 계기나 동기를 가지고 만든 모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연을 그만두고 싶어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게 됐어요. 매년 가을마다 공연을 올렸더니 시즌이 돌아오면 주변 의사들이나 지인들이 '이번 작품은 뭐냐, 언제 공연하냐'고 먼저 물어보는 상황이 된 거죠. 하하. 그러한 성원에 힘입어 2005년, 2006년은 2년 동안 세 차례나 공연을 하게 됐어요. '연극은 세상에 대한 이해이며 소통이다'라는 생각으로 공연을 기획하고 있는데, 이런 칭찬들이 힘이 되고 자부심도 느끼게 합니다.”
진료를 병행하면서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 모든 공연은 기획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지난 6월 7일부터 15일까지 공연했던 11회 정기공연물 '늙은 부부 이야기'는 장기 공연을 염두에 두고 시작했던 연극이어서 준비 단계부터 남달랐던 공연이었다.



“이전 공연은 보통 3, 4일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공연기획의 주안점을 ‘노인들을 위한 공연’에 두었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작품의 주인공들과 같은 환경의 독거노인들에게 공연 수익과 자선모금함에 모인 돈을 기부하는 것에 앞서 문화행사에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공연 중 3회 정도는 노인 분들을 초청하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소외받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관심 촉발과 황혼의 사랑도 젊은 사람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언론의 왜곡보도에 따른 치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접근이기도 하구요.”

지금의 연사모 공연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쉽게 이뤄진 결과는 아니라고 한다. 치과의사들의 취미 활동쯤으로만 여기던 시선도 많아서 공연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던 터라 회원들이 십시일반 사비를 털어 공연을 준비하고 홍보도 직접 나서는 등 초기에는 연극 한 편 올리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Dental Theater



“이번 공연만 해도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협찬을 해주셨어요. 이전 단순히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의미 이상의, 치과 문화 단체의 중심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첫 공연으로 ‘세일즈맨의 죽음’을 올렸을 때가 생각나네요. 별 기대 없이 관람하셨던 분들이 하나같이 수준 높은 공연이었다고 인정해 주시더군요. 특히 공연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무대미술이나 조명, 분장 등 외부 스태프들의 칭찬과 이후의 적극적인 후원은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변화입니다.”

연사모의 대표가 생각하는 ‘연사모의 자부심’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는 말한다. 공연을 통해서 보여주는 배우들의 연기력과 스태프들의 열정, 그리고 세밀한 연출과 탄탄한 기획을 하나로 이어주는 팀워크라고.

여기에 덧붙여 앞으로 연극에 관심 있는 젊은 치과인들의 참여가 활발해지기를 바라면서 연사모 공연에 대한 기대와 격려가 더해질수록 지금보다 더 나은 공연으로 보답할거란 자신감 넘치는 이야기를 들으며 무대 뒤편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연출자 박건배

연출의 변

“이 작품을 왜 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던 적이 있어요. 치과도 진료 스트레스가 많은 과목 중 하나죠. 치과뿐만이 아니라 현대인의 삶이 팍팍하고 메마르잖아요. 그래서 특정 직업에 관계없이 우리의 이야기 아니면 주변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한 번 쉬어 가자는 거였죠. 편하고 자연스럽게... ‘늙은 부부 이야기’의 연출에 있어서 바로 그 점이 가장 큰 주안점을 두었어요.

헤어짐, 노년의 사랑에서 죽음으로 가는 것에 대해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삶의 한 가닥의 끝으로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듯이 작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픔은 즐겁고 하나 정도는 슬픈 이야기로 가고 싶었지만 그것은 연출가의 손을 떠난 객석의 자유이고 객석의 마음인거죠. 다만 연극 속 주인공을 통해 관객들도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됐기를 기대합니다.



해적들의 치아도 고르고 예쁘게!

해적이 나오는 영화를 보다보면 괜한 궁금증 하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왜 해적들의 입 속은 저럴까? 너무 반짝거리는것 아냐? 아프겠다.' 하고 말이다. 영화 속 해적들의 엽기적인 치아 상태는 캐릭터 완성을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의치에 색을 입히고 장식을 한 것이라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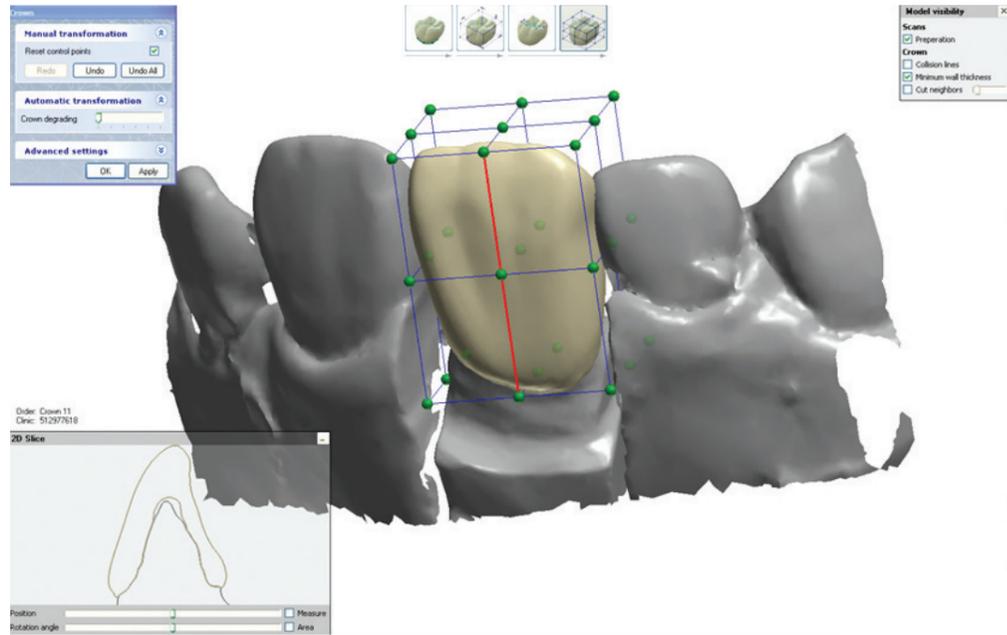
인기리에 상영되었던 '캐리비안의 해적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치아 관리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된다. 후추를 씹어 검게 변한 이, 빠드링니는 기본이고 치아에 다이아몬드 장식을 하기도 한다. 우리 머릿속의 '해적'에 대한 관념적 이미지는 바로 얼굴의 인상을 결정하는 치아 모양으로 결정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조니 뎀이 연기한 잭 스페로우의 전형적이지만 나름대로 멋진 해적의 모습을 갖추었다.

카리브해의 자외선을 모두 받아 낸 것 같은 그을린 피부, 멋대로 꼬인 수염, 값싼 구슬장식이 치렁치렁 달린 머리, 입을 벌릴 때마다 검은 이 사이로 경박하게 드러나는 반짝이는 금니. 영화 제작 뒷이야기에 따르면 가장 공을 들인 특수효과가 바로 잭 스페로우의 금니를 비롯해 주요연급으로 등장하는 배우들의 해적다운 치아 만들기라고 전해진다. 잭의 금니, 새끼말개 변해버린 치아 변색, 말할 때마다 발음이 새는 듯한 빠드링니를 지닌 해적들... 이들도 치료와 관리를 받으면 다시 예쁘고 고른 치아가 될 수 있겠지?



해적들의 치아가 검게 보이는 이유는 치아자체의 변색도 있지만 이를 잘 닦지 않아서 치석이 쌓이고 치아 표면에 니코틴 등이 착색이 된 경우가 더 많다. 칫솔질과 스케일링만으로도 치석과 착색이 제거되어 깨끗한 치아를 만들 수 있다. 여기에 미백치료까지 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고르지 못한 치아는 교정치료를 통해서 가지런하게 만든다면 더 멋진 모습이 되지 않을까. 

사진출처: 캐리비안의 해적들 - 망자의 함 (2006)



1. 들어가는 말

유교의 5대 경전 가운데 하나이고 사서삼경에도 포함되는 서경의 홍범편[洪範編]에는 인간의 오복을 수(壽), 부(富), 강녕(康寧), 유호덕(攸好德), 고종명(考終命)이라 하여, 인간으로 태어나 장수하면서 부를 누리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덕을 많이 베풀며 질병 없이 살다가 편안하게 일생을 마치는 것이 복을 누리는 삶이라 하였다.

오복 중에 치아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건강한 치아로 음식을 가리지 않고 꼭꼭 씹어 그 맛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 중 하나로 인식되면서 건강한 치아에 대한 관심이 꽤 높다.

또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현대의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듯 치과분야에서도 심미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치아로 회복하기 위한 재료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심미치과 분야에서 새롭게 사용, 소개되고 있는 Computer-Aided Design / Computer-Aided Manufacturing (이하 CAD/CAM) 시스템과 이때 사용되는 재료 중의 하나인 지르코니아(Zirconia)에 대해 알아본다.

컴퓨터를
이용한
심미치료

박인임 공보위원

소중한 치아
더욱
아름답게 !

1. 들어가는 말
2. 심미수복을 위한 재료
3. CAD/CAM 시스템
4. CAD/CAM 시스템을 이용한 치료 과정
5. 지르코니아
6. 임상중례
7. 맺는 말



건강한 일생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건강한 치아다.



보다 자연스러운 치아 수복을 위해 올 세라믹 크라운 등을 선택할 수 있다.

2. 심미수복을 위한 재료

치과 치료 중에는 치아가 상실된 부위를 수복해 주거나, 혹은 근관 치료를 받은 치아들을 씹어주기 위해 많은 재료가 사용된다. 치과용 수복재료는 씹는 힘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하고, 침이나 음식물의 작용에도 변화가 없고, 생체적합성도 우수해야 하며, 이에 더해 색깔과 형태가 자연치와 유사하다면 금상첨화라 할 수 있다. 보다 자연스러운 치아로 수복하려는 요구에서 금속이 없는 올 세라믹 크라운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올 세라믹(all ceramic) 크라운은 내면에 금속이 없기 때문에 빛의 반사와 투과도가 향상되어 보다 자연스럽고 심미적이다. 반면에 강도를 보강하려면 일정량 이상의 두께가 필요하므로 치아의 삭제량이 많아지고, 강도가 좋은 알루미늄이나 또는 지르코니아를 사용하여 내부 구조를 제작해야 한다.

최근에는 강도가 좋은 내부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지르코니아 블록을 직접 깎아 정밀 가공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밀 가공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CAD/CAM이다.



라미네이트와 레진 및 PFG(금도재관)을 이용한 충치치료



오래된 금속 도재관 주위의 잇몸 염증. 잇몸치료 후 다시 씌운 상태

3. CAD/CAM 시스템

치과에서 사용하는 CAD/CAM 시스템은 1987년 처음 도입된 이후, 다양한 종류의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크라운 또는 브릿지의 형태를 디자인(CAD) 한 후, 컴퓨터에 의해 제어되는 기계장치로 세라믹 블록을 깎아(CAM) 크라운 또는 브릿지의 전체 또는 일부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완성한다.

CAD/CAM 시스템을 이용하면 보철물 제작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보다 강도가 좋은 보철물을 만들 수 있다.

CAD/CAM 시스템은 스캐너, 밀링머신 및 신터링 퍼니스의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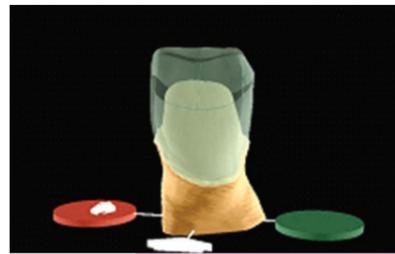
4. CAD/CAM 시스템을 이용한 치료과정



치아를 식제한 상태



본을 뜬 후 모형을 제작한다.



스캐너로 스캔을 한다.



코핑을 제작한 상태



포세린을 축성한다.



완성 후 구강 내에 장착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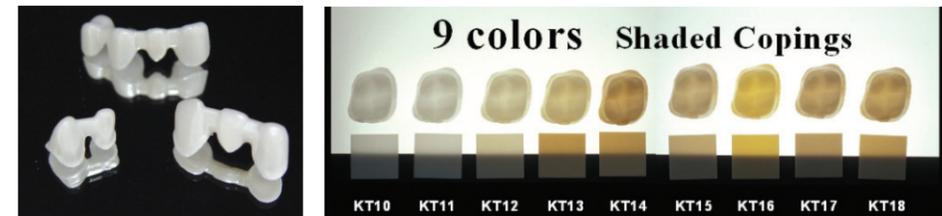
5. 지르코니아

지르코니아는 산화지르코늄(ZrO_2)의 총칭으로 용융점이 2700°C로 높아 내열성 세라믹 재료로 많이 사용되며 상온에서 백색의 고체이다.

치관 수복 재료로는 흰색을 띄므로 올 세라믹(all ceramic) 크라운 또는 브릿지의 내부 구조(코핑)로 강도를 보강하여 파절 가능성을 줄인다. 지르코니아로 제작한 내부 구조에 치관 세라믹을 축성하여 고온에서 구워 자연스러운 색상의 치관을 제작할 수 있다.

지르코니아의 가장 큰 장점은 내부 보강 구조로 금속 대신 사용하여 잇몸 주위와 치아의 색이 보다 자연스러워 보이므로 심미성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임플란트에 연결하는 지대주나, 교정용 브라켓 등에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지르코니아로 제작한 치관의 내부. 자연치에 맞추어 다양한 색상으로 만들 수 있다.

6. 임상증례

▶ 상악 우측 3개의 치아를 지르코니아 블록을 이용하여 씌운 증례



상악 우측 치아 상태



보철물 제거 후 치아를 삭제



본을 떼서 모형을 만든 상태



내면을 지르코니아 코어로 제작



보철물을 장착한 상태

▶ 상악 전치부 치아를 지르코니아를 이용하여 씌운 증례



상악 전치부 치아



보철물 제거, 지대치 형성



새로운 보철물 장착

7. 맺는 말

| 심미적인 수복을 위한 최신 치과치료법 중 하나인 컴퓨터를 이용한 CAD/CAM 시스템과 이때 사용되는 재료인 지르코니아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미 상한 치아를 치료하는 두 가지 목적은 기능과 심미성의 회복이다. 치아의 기능인 음식을 잘 먹고 제대로 발음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면서, 눈에 잘 띄는 치아는 가능하면 보기 좋게 치아와 유사한 색상으로 자연스럽게 수복한다.

자연스러운 색상을 보이는 재료는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다. 그리고 치료의 방법도 구강 내의 상태와 조건에 따라 다양하며, 기존의 재료와 치료 방법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CAD/CAM 시스템과 지르코니아를 이용한 치료방법은 기존의 방법과 비교했을 때 장단점이 있고, 상황과 조건에 맞는 증례를 잘 선별하여 적합하게 사용해야 하므로 치과 의사와 잘 상의하여 치료의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컴퓨터를
이용한
심미치료

소중한 치아
더욱
아름답게!

호주 멜버른에 위치한 헨리 포만 앳킨슨 치의학 박물관



1. 양치한 물이나 오물을 뱉어내는 Spitton Cuspider(타구)
2. 치아해부모형도
3. 치과진료 모습



1. 금속으로 만든 1930년대 금탕기
2. 1950년대 목재로 만든 치과기구 수납장
3. 초창기 칫솔들



1. 1875~1900년의 수술용 집게 세트
2. 마취주사기(1881년)
3. 상아 손잡이가 달린 금속 재질의 발치기(1840년)



1. 멜버른치과박물관 소장품 전시실
2. 치과 재료나 기계 등을 테스트 했던 장비(1935년)
3. 치아모형
4. 상아손잡이가 달린 치과 치료 기구 세트

Dental Museum



1895년도 치과 진료의자



1795년 조지워싱턴의 틀니

The Henry Forman Atkinson Dental Museum

치의학 박물관은 근대 치의학 발전의 과정과 각종 치과용 기자재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치의학 관련 유물들을 수집·전시하고 역사를 보존하는 자료 보존소로서 치의학을 연구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세계 속의 치과 박물관, 호주 멜버른에 위치한 헨리 포만 앳킨슨 치의학 박물관으로 떠나보자.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에 있는 헨리 포만 앳킨슨 치의학 박물관은 치의학 역사와 교육에 관련된 오브제와 사진, 자료 및 카탈로그 등 2500개 이상의 물품을 소장하고 있다. 17세기 초반의 치의학 관련 자료부터 수집되어 있는데, 당시의 치의학 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부터 전문적 자료까지 보관하고 있다. 1884년 이곳에서는 빅토리아 주의 치과 발전 상황, 치의학 교육 등에 대한 자료를 살펴볼 수 있는데, 18세기부터 현재까지의 치과 기술, 실습실, 실험장비, 치료법들이 망라되어 있다. 이곳은 멜버른 대학 소유 박물관 중 호주에서 가장 많은 치의학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는 매우 흥미진진한 박물관이다.

이 박물관의 역사는 해외에서 공부한 치과의사들이 빅토리아 주 치과의사들의 교육과 규율을 목적으로 구성된 법치의학협회가 만들어진 1884년에 시작되었다. 협회 초창기 모임에서 회원 중 한 명인 브릭스가 기증한 백향목 캐비닛을 시작으로 도서관과 박물관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불행하게도 이 캐비닛은 현재 남아 있지 않지만 박물관은 여전히 초창기 도서관의 몇 가지 소장품과 함께 살아 숨쉬고 있다. 법치의학협회 기록에 따르면 1880년대 활동했던 회원들은 치의학 발전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회의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 그 당시 치과의 상황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가 단순히 기능공이 아니라 치외과의라는 전문가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데에도 기여했다. 치의학 방면의 다양한 컬렉션을 선보이는 이곳은 현재 다양한 실습,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치의학의 역사와 치과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게 하고, 빅토리아 주 치과의사들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museum.dent.unimelb.edu.au

자료 및 이미지 출처: museum.dent.unimelb.edu.au

치과 의사를 꿈꾸는 젊은이들 치의학전문대학원을 가다



참여학생 : 조규민(2학년), 김도섭(1학년)
장정훈(1학년), 김철희(1학년), 김문희(2학년)
이동교(2학년), 이선화(2학년), 권영일(2학년)

시대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치과대학도 변모하고 있다.
치과계 역시 치의학전문대학원제도를 통한 치과 의사 선발 형태로 서서히 전환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제도의 특성상 전문대학원은 대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부터
직장생활 중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학생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진료봉사동아리 WBM 회원들을 만나 치과 의사를 꿈꾸는 그들의 속마음을 들어보았다.
진행 · 김준호 / 사진 · 김도훈

Q. 각자 하던 일을 접고 치과 의사라는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게 된 동기가 있다면?

동기요? 제 인생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치과 의사라는 직업 자체에 대한 매력이지요. (조규민)

물리학을 전공했어요. 물리학은 호기심을 충족시켜준다는 면에서 만족스러웠지만, 치의학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김도섭)

수학, 물리를 좋아해서 기계환경공학부에서 공부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저 역시 배운 만큼 환원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치과 의사의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장정훈)

생물학 전공했어요. 그러다가 군대에서 치위생병 보직을 받았는데, 흥미가 생기더군요.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도전하게 되었고,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김철희)

저도 대학에서 생명과학을 전공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꿈꿔온 의사가 되기 위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문희)

화학공학을 전공하면서 항상 느꼈던 것이 불확실한 미래였어요. 그래서 전문직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지금은 재할 학교 봉사 경험을 바탕으로 소아치과학과 장애인치과학과 등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동교)

생명과학을 전공하는 여학생들의 진로는 남자들보다는 한정된 게 사실이지요. 그러던 중 치과 분야에 관심이 커져서 입학하게 됐어요. 전문성을 가진 유능한 치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선화)

저는 약학과를 졸업했는데 자아실현 측면에서 성취감이 필요하게 되었죠. 치과대학은 자신의 실력에 따라 결과가 바로 나타나고 그만큼 보람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일)

기존의 치과대학과 달리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일단 4년제를 졸업했거나 예정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데 제도 도입 초반에는 일부 사람들이 치과 의사가 되려면 대학 내신과 수능 점수로만 바로 전문대학원 입시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치의학전문대학원 준비는 어찌 보면 대학입시보다도 더 힘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GPA, 공인영어성적, DEET, 면접 등의 여러 관문을 거쳐야 하는데, 그중에서 DEET는 치과 의사 또는 치의학 연구 인력으로서의 적성과 소질을 검사하는 시험으로 치의학 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수학능력을 측정하는 항목이다. 모든 치의학 전문대학원의 입학 요강에 DEET는 의무 사항이다. 물론 학교별로 DEET 성적 반영 비율은 각각 다를 수 있으나 출제 범위와 유형이 워낙 까다로워 준비 과정에서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또한 어떤 전공을 이수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지만, 출제 범위 중 자연과학추론과 공간능력에 대한 문항이 많기 때문에 생물학 관련 학과나 화학과, 이공계 학생들이 다소 유리하다고 한다. 아울러 딱심 있는 자신만의 학습전략과 철저한 시간 관리만이 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Tip!

현재 국내 11개 치과대학은 기존의 6년 과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치과대학(5개)과 학사 취득 후 4년제 치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도입한 치과대학(6개)으로 구분된다. 유형별 전형과정 및 방법은 각 치과대학 입시 요강을 참조하면 된다.
※전문대학원제 치과대학: 서울대, 경희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기존 6년제(예과, 본과4) 치과대학: 연세대, 조선대, 원광대, 단국대, 강릉대



|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선택한 이유도 그런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주변에 봉사하는 삶을 통해 즐거움을 찾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저도 베푸는 삶을 사는 치과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Q. 입학 결정하는 것도 어려웠겠지만 입학 후에 겪는 어려움은
있나요?**

직장을 다니다 오신 분들은 더 힘들었겠지만 앞서 나왔던 이야기 처럼 준비 과정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경쟁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서 합격한다는 확신이 없죠. 입학시험이 취업준비 시기와 겹쳐서 상당한 결단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다만 적지 않은 나이로 학생 신분이라는 점, 경제적인 부담감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게다가 속된 말로 돈벌이되는 직업이라서 선택한 거 아니냐는 주변의 시선, 편견도 부담스럽고 답답하고요. (조규민)

제 나이가 20대 후반인데, 만약 진학을 안 했다면 결혼을 생각할 시기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학생 신분이라 결혼이나 연애에 대해 고민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일까요? 지금은 공부에 더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방향 전환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깊이 생각하고 신중히 결정하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도섭)

결혼도 하고 새로운 가족이 생길 나이인데 제때 할 일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또 졸업하면 서른 한 살, 수련 과정을 거치면 서른 다섯, 여자들은 결혼해서 애기가 있으면 수련의 과정 힘들다고들 하고... 물론 제가 수련의가 되는 시점이면 대부분 전문대학원 출신이라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과 같다면 선택을 강요받는 순간이 올 것 같다는 불안감도 있어요. (이동교)

Q. 치과의사로서, 자연인으로서 미래에 대한 계획과 포부는?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이유도 그런 삶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봉사하는 삶을 통해 즐거움을 찾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저도 그런 베푸는 삶을 사는 치과의사가 되고 싶어요. (김문희)

치과의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확한 실력과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력을 갖춘 따뜻한 정이 있는 치과의사가 되는 것이 목표예요. (이동교)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치과의사? 입학 전의 삶과 비교하면 지금 훨씬 더 만족스러워요.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있고요. 외람된 말이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삶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치의학전문대학원이라는 확신이 들 때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김도섭)

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치과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진료 봉사를 하면서 아직 학생이다 보니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서 저 자신이 저를 인정할 수 있는 훌륭한 치과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조규민)

문득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은희경)'라는 책 제목이 생각난다. 전문대학원의 특성상 연일 계속되는 공부와 시험 등 바쁜 일정으로 시계조차 볼 시간이 없다는 WBM 회원들이었지만, 그래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은 사람의 얼굴은 행복해 보였다. 그들의 꿈과 열정에 지지를 보낸다. **✎**

치의학에 대한 끝없는 열정으로 사랑을 전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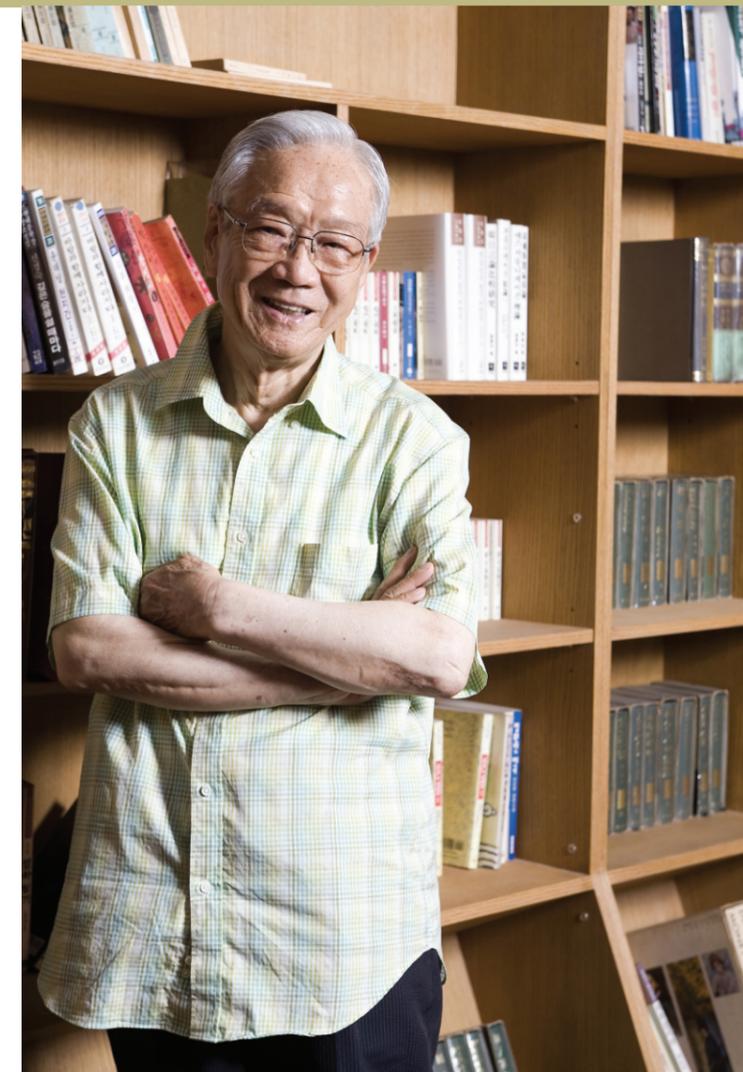
지헌택 박사

일주일간의 몽골봉사활동을 막 끝내고 돌아온 지헌택 박사(前 대한치과의사협회장/現 국립몽골치과대학 명예교수). 국내에서 치위생과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한 치과의사, 한국 치과계의 거장, 몽골치과계의 대부 등 그를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헤아릴 수 없다.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열정으로 여전히 치과계의 큰 인물로 인정받고 있는 그의 몽골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진행·양주희 / 사진·김도훈



지헌택 박사는 오래 전에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직에서 정년퇴임한 한국 치과계의 원로이다. 한국,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치과의사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를 모두 거친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사람이다. 그런 그가 지금도 여전히 몽골 치과계를 위해 열정을 쏟고 있다. 몽골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1981년쯤이던가? 아시아치과연맹 회장으로 있을 때 밀라노세계치과연맹 회의에 참석했었어요. 그때 우연히 몽골에서 온 여성을 만났는데 몽골 정부의 치과 책임자였죠. 당시 열악한 환경으로 힘든 상황이었던 몽골에서 참석해 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특히 치과 개원의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고, 이후에 그 분이 몽골 정부의 압박과 동료 치과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업을 했죠. 그 여성 치과의사와의 만남이 인연의 시작이었죠.”



진심은 달린 마음을 여는
가장 빠른 길.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순수한 도움의 손길에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물질적인 도움 외에
그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바로 몽골 치과의사들의
교육이었다.

어렵게 맺었던 인연은 1994년 새로운 물꼬를 트게 되는데, 그가 세계치과연맹 상임이사 시절에 쓰루마키 전 세계치과연맹회장과 함께 몽골을 회원국으로 가입시키고자 방문하게 되면서부터이다. 당시

정부 치과 책임자로 그 여성 치과의사가 마중을 나왔고 울란바토르 내에 있는 4곳의 종합병원을 안내했다. 그런데 병원의 진료 환경이 한마디로 목불인견이었다고 한다. 낙후된 치료시설에 마취제조차 구비되지 않은 치과병원은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가 겪었던 상황 그대로였다. 몽골 병원의 열악한 상황을 접하는 순간 그의 뇌리에는 새로운 희망 하나가 스쳤다.

“우리나라 치과계 역시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여러 나라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 지금의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갚아야 할 때가 되었구나 싶더군요. 몽골 아이들의 순수하고 까만 눈동자를 보면서 저 아이들 눈 속의 별을 더 빛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급해지더군요.”

세상일이라는 것이 마음처럼 쉽게 되는 것은 아닐테다. 이런 지현택 박사의 생각을 몽골 정부가 처음부터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물론 순수한 의도로도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이야 한국 가게도 생기고 한국에 대한 인식도 좋아졌지만, 당시에는 쓸 만한 것들이 거의 없어서 심지어는 한국에서 설탕까지도 가져갔다. 그러한 상황에서 고가의 장비인 유니트체어에 치과 치료용 재료까지 가져다주는 그의 행동에 의심의 눈길을 보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심은 달린 마음을 여는 가장 빠른 길.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순수한 도움의 손길에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물질적인 도움 외에 그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바로 몽골 치과 의사들의 교육이었다.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슬라이드 강의를 시작했어요. 좁은 방에 40명 정도가 꼭 들어차서 강의를 듣는데, 그 눈빛은 아직도 기억이 날 만큼 반짝반짝 했어요. 첫 강의 후 다음날에는 80명이 왔더군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강의를 위해 50명 정도로 인원을 선발하고 강의 주제도 몽골에서 원하는 것으로 준비해서 진행했어요. 사실 보철에 꼭 필요한 구조기도 없어서 직접 우리 쪽에서 보내서 설치까지 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몽골에 치과대학 하나 만들어준 셈이죠. 하하”

에어 컴프레서부터 유니트체어까지 모두 ‘메이드 인 코리아’ 신품으로 지원했다. 학생 때부터 실습하면서 사용했던 기기들은 졸업하고 개원의가 되었을 때에도 기억하고 구매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래서 그는 기공실에서 사용하는 오토클레이브 등 모든 기구 일체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준비해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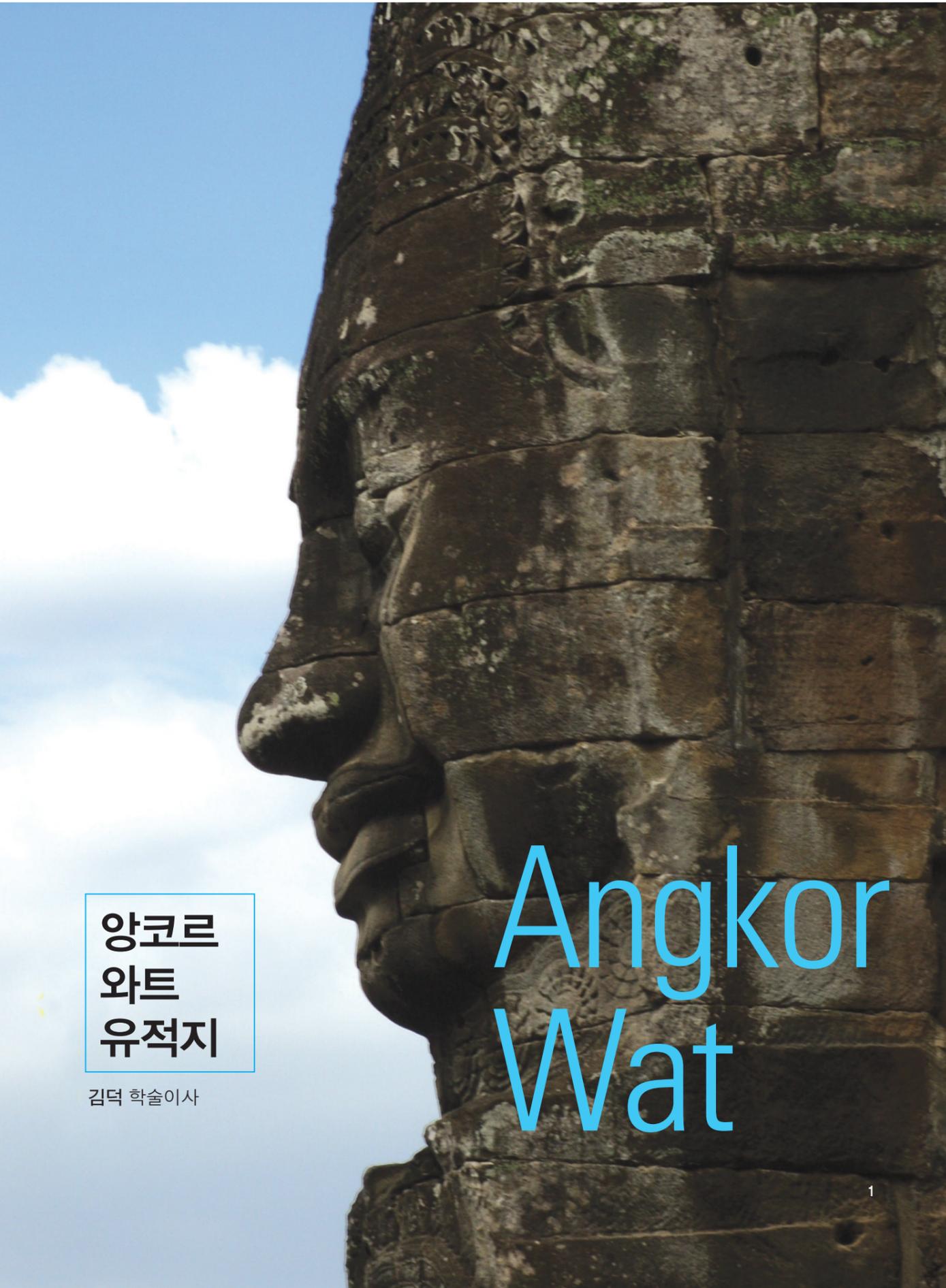
자기 힘으로 벌어먹고 살 수 있다는 어머니 말씀에서 시작된 치과의사의 길은 학부, 수련의, 유학시절 등 어려움은 많았지만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고 자신한다. 치과의사가 되는 것에만 연연하지 않고, 우리나라 치의학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것에 대해 끝없이 고민하고 연구했기 때문이다. 1966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내에 치과위생사 양성 기관을 국내 최초로 설립한 것부터 한국의 치과계를 알리기 위해 여러 요직을 거치며 꾸준히 홍보했던 일 등은 하나하나 좋은 결과를 이뤄냈다. 그리고 오늘, 그는 한국의 구강보건 발전과 한국 치과계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공헌을 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의 꿈? 몽골 치과계에 대한 도움을 계속해서 몽골 치의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놓고 싶어요. 그리고 후배 치과의사들에게는 자신만의 철학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치과의사 개개인은 워낙 프라이버시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헌신하겠다는 철학 없이 돈에

만 매달리기보다 봉사하는 자세로 진료에 임한다면 우리 치과계의 앞날에도 빛이 돌아올 겁니다.”

지현택 박사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과 희생정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앙코르
와트
유적지

김덕 학술이사

Angkor Wat

1



2

3

전 세계인에게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알리는 계기가 된 영화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킬링필드'와 '툼 레이더' 일 것이다. 전자가 우리에게 아비규환의 생지옥을 연상케 하는 나쁜 인상이었다면, 후자는 앙코르 와트라는 신비로운 건축물을 통해 캄보디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말끔히 지워버리고 우리들에게 죽기 전에 꼭 가 보아야 할 여행지로 추천하게 만들어 주었다. 엄밀히 말하면 앙코르 와트는 캄보디아, 그 중 씨엠립 인근의 많은 사원 중 가장 큰 대표적인 사원의 하나일 뿐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앙코르는 크메르어로 '도시 또는 수도', 와트는 태국어로 '사원'을 뜻하는 말로, 서기 802년부터 1430년경까지 크메르 왕국의 중심이었던 거대한 사원이다. 앙코르 유적은 앙코르 왕국이 남긴 힌두교와 불교의 석조 종교건축 유적의 총칭으로 5,000개가 넘는 석상과 조각, 그리고 100개가 훨씬 넘는 사원들이 현재 캄보디아 제 2의 도시인 씨엠립 인근에 퍼져 있다.

1. 바이온 사원의 사면상
2. 앙코르 와트의 전경, 우기에는 가득찬 연못 물에 비치는 앙코르 와트의 야경이 백미이다.
3. 앙코르 와트의 내벽에 새겨진 수많은 압사라(천녀) 부조 중 단 하나 치아를 드러낸 압사라가 있으나,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앙코르 와트는 수르야바르만 2세가 힌두교의 비쉬누 신에게 봉헌한 사원으로 즉위한 해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사망한 해까지 계속했던, 무려 37년간이나 다듬은 사원이다. 바깥벽이 동서 1.5km, 남북 1.3km의 직사각형의 터에 높이 65m의 중앙탑을 중심으로 지어진 웅장한 석조 건물이다. 정면이 서쪽을 향해 있으며, 바깥벽 안쪽으로는 폭 200m 가량의 해자가 있다. 앙코르 와트는 모두 3개의 기단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 번째 기단은 약 800m나 되는 긴 회랑(回廊)으로, 앙코르 제국의 전설과 힌두교 경전에 나오는 인물들이 부조로 새겨진 아름다운 벽화로 장식되어 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단에 오르면, 각 변으로 부처가 모셔져 있으며, 중앙의 가장 높은 탑과 네 귀퉁이의 탑 등 모두 5개의 탑이 자리잡고 있다.



1



2



크메르 왕국의 최대 유적군인 '앙코르 톰'은 12세기 말에서 13세기 초 자야바르만 7세가 지은 크메르 왕조의 마지막 수도로, 앙코르와트 북쪽 1.7km지점에 있으며, 그 규모를 비교하면 앙코르 와트보다 훨씬 거대하다. 한 변의 길이가 3km나 되는 성벽으로 이루어진 정사각형의 유적지로서 사방에 한 개의 문과 왕궁과 연결된 문 하나, 모두 5개의 문이 있는데, 그중 북원이 가장 잘 되어있는 남문을 통해 관광을 시작한다. 이 유적지의 중심부에 위치한 '바이온 사원'은 불교 사원으로, 약 반세기 먼저 세워진 앙코르 와트와 함께 앙코르 문명의 쌍벽을 이룬다. 이 사원의 54개 탑의 네 면에 조각된 200여 개의 부처님 얼굴 조각상은 보기만 해도 신비스러움을 자아내는데, 사람들에게 '앙코르의 미소'로 불리운다. 씨엠펜 시내 남동쪽에 위치한 '롤루오스' 유적군은 앙코르 시대 초기인 9세기 후반에 건설된 3개의 사원인 '바공, 롤레이,쁘리아코'를 일컫는데, 그중 '바공 사원'은 롤루오스 유적군에서 가장 볼 만하고 형태가 온전한 크메르 왕국 초기의 사원으로 당시 도읍지의 한 가운데에 우뚝 솟은 웅장한 사원이다.

- 1. 앙코르 톰 남문
- 2. 바이온 사원의 사면상
- 3. 바공 사원의 전경



3



❖ 영화 '툼 레이더'에 나와 전세계에 앙코르 와트를 알린 계기가 된 '타프롬' 사원은, 앙코르 와트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원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지원 협력을 받아 현재 계속 복원 공사를 하고 있으나, 이 사원은 복원을 하지 않고 현재 상태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그 이유는 '스푹'이라 불리는 큰 나무가 사원 건물의 벽돌 틈새에서 자라 사원 건물과 나무 뿌리가 한데 뒤엉켜 있어서 복원을 위해 나무를 제거하면 사원 자체가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나무에 성장억제제를 놓아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여, 사원과 나무가 공존하고 있는 형태이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이 사원이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신기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1. 스푹나무와 뒤엉킨 사원
2. 중앙탑에 조각된 여신상
3. 반테이 스레이 사원



❖ 앙코르의 모든 유적이 왕이 지은 국가 신전으로 신의 무덤이라는 성격을 지니는데 반해, '반테이 스레이'는 자야바르만 5세의 스승인 브라민 야즈나바라하가 지은 즉, 왕이 짓지 않은 초기 유적의 걸작품이다. 이 사원은 1923년 프랑스 문화부장관이었던 앙드레 말로가 '동양의 비너스 또는 모나리자'라 불리는 중앙탑에 조각된 여신상을 밀반출 한 사건을 계기로 주목 받으면서 보수공사를 시작했다. 당시 앙코르 유적지의 복원 작업에 참여했던 프랑스 건축가들이 이 사원을 '보석'에 비유하며 '크메르 예술의 극치'라 표현했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부조가 아주 훌륭하고 아름답다. 단단한 붉은 사암에 정교한 조각을 새겨 지은 사원으로, 전체가 한송이 붉은 꽃잎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사원이다. ❖



제대로 알자!

치아 건강 상식 7가지



한 사람의 치아가 평생 동안 부수고 뱉아내는 음식이 무려 200트럭분이라고 한다. 인스턴트 식품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섬유질이 풍부한 자연식을 섭취하여 충치 등의 치과질환이 적은 편이었지만, 오늘날은 당분, 각종 감미료 등 인공 식품이 많아지면서 치아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대부분의 치과 질환은 정상시의 관심과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잘못된 상식으로 병을 키우는 경우도 많다. 몇 가지 예를 통해 예방과 정확한 정보를 얻도록 하자.

조정근 공보위원



1.

잇몸병을 먹는 약으로도 치료할 수 있나요?

잇몸병의 가장 큰 원인은 음식물 찌꺼기(치태)와 치석이다. 일단 잇몸병이 발생하게 되면 치태와 치석의 제거를 포함하는 잇몸치료(치주치료)를 받게되며 먹는 약만으로는 치료되지 않는다. 이러한 잇몸병은 치태 제거를 위한 정확한 칫솔질 습관과 정기적인 치석제거(스케일링)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

2.

치아는 소금(죽염)으로 닦는 것이 좋은가요?

치약에는 이를 잘 닦이게 하는 세제와 세마제(고운 연마제 성분)가 포함돼 있다. 소금으로 칫솔질을 하면 소금이 녹기 전에는 소금의 굵은 입자로 인해 치아를 오히려 마모시키거나 잇몸에 상처를 주기 쉽고 소금이 녹은 후에는 치약에 있는 세제와 세마제 성분이 없기 때문에 치아면을 닦아내는 효력이 많이 떨어져 치아 건강에 좋지 않다. 다만 치약으로 이를 닦고 나서 소금물로 헹궈내는 것은 잇몸질환 예방 차원에서 괜찮다고 할 수 있다.

3.

식후에 껌을 씹는데, 칫솔질 효과가 있나요?

껌을 씹는 것으로 칫솔질처럼 치태가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껌에 포함되어 있는 당분으로 인해 음식물 찌꺼기가 치아표면에 달라붙거나 충치를 유발할 수 있으며 악관절이 좋지 않은 사람은 턱관절에 무리를 주어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4.

임신 중에도 치과 치료가 가능한가요?

임신 중에도 치과 치료는 가능하다. 다만 치과 치료가 갖는 공포감 등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치료시의 자세로 인한 문제, 약물투여 등에 있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태아의 착상이 불안정한 임신 초기(1~3개월)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임신중기(4~7개월)를 택하여 치과 진료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치과치료 전에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 만약 임신을 준비하고 있다면 스케일링, 충치치료, 사랑니 발치 등은 미리 하는 것이 좋다.

5.

구강세정제로 충치를 예방할 수 있나요?

단기적으로는 구강세정제에 포함되어 있는 항균성분으로 인해 충치예방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구강 내 세균의 정상적인 균형을 깨는 문제를 초래하여 오히려 구강 칸디다증과 같은 치과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상의 주의가 필요하다. 치태의 제거는 정확한 칫솔질을 통해 가능하며 잇몸 수술, 사랑니 발치, 임플란트 수술 등의 치과 수술로 인해 정상적인 칫솔질이 어려운 경우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6.

일반 칫솔보다 전통칫솔이 더 좋은가요?

초기의 전통칫솔은 장애가 있거나 정상적인 칫솔질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해서 칫솔모의 회전으로 칫솔질을 대신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하지만 편리성에 비해 효율성은 일반 칫솔보다 많이 부족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초음파의 진동으로 치태를 제거하는 형태의 전통칫솔이 개발되는 등 기존의 단점들을 많이 보완했다. 일반 칫솔과 전통칫솔 선택의 문제보다는 올바른 사용법이 더 중요하다 하겠다.



7.

레몬즙, 바나나가 치아를 하얗게 해준다면요?

치아미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방법들은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레몬즙을 거즈에 묻혀 치아를 마시지하거나 바나나 껍질을 이용하는 것은 산에 의한 일시적 부식 현상으로 치아색을 변하게 하는 것이다. 충치 예방 효과가 있는 녹차는 많이 마실 경우 녹차에 포함된 색소로 인해 치아를 변색시키기도 한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미백치약이나 미백껌 역시 보조적 역할일 뿐, 치아미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Saving Natural TOOTH

최성백 공보위원

자연 치아 살리기

평생 예쁘고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지만 멋지고 건강한 몸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듯이 치아건강도 저절로 얻을 수 없다.

몸에 좋은 음식, 규칙적인 생활과 더불어 매일매일 양치질을 잘 하고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해서 스케일링도 받고 충치가 많이 진행되기 전에

치료도 받으면서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치태나 치석이 쌓여서 잇몸 염증이 생기면 스케일링을 포함한 잇몸치료를 하고,

충치가 심해져서 치아 신경까지 세균이 침투하면 근관(신경)치료를 해서 치아를 살린다.

그래도 치아를 치료해서 사용할 만하면 다행이지만 잇몸병이나

뿌리 끝 염증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치아를 살릴 수 없을 때는

아깝지만 치아를 뽑고 브릿지나 임플란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치과치료를 받는 환자와 마찬가지로 치과의사들도 이를 뽑고 보철치료를 하거나 임플란트를 하기보다는 자연 치아를 살리는 것을 더 선호하며, 자연치아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술들은 약간의 외과적인 치료 과정이 동반되며, 다음과 같은 술식들이 대표적이다.

치근단 수술

(Apicoectomy)

통상적인 근관(신경)치료 방법으로 치료되지 않거나 큰 병소가 있는 경우, 치아의 뿌리 끝을 외과적인 방법으로 치료하여 병소를 치료하는 경우

강압 맹출술

(Forced Eruption)

뿌리만 남아 적절한 보철 수복을 할 수 없는 경우 뿌리를 잇몸 위쪽으로 노출시킨 후 기둥을 세워 보철을 하는 경우

치아 재식술

(Intentional Replantation)

통상적인 근관(신경)치료로는 치유가 될 수 없고

치근단 수술도 불가능한 경우, 의도적으로 치아를 뽑아

뿌리 끝을 치료하고 뽑은 자리에 치아를 다시 재위치시키는 경우



1. 치근단 수술 (Apicoectomy)

예전에는 이가 아프면 이를 뽑았지만 학문이 발달하면서 치아가 아픈 원인이 치아 안에 있는 신경조직이 세균에 의해 감염이 되어 아픈 것을 알게 되었고, 원인이 되는 신경조직을 제거함으로써 통증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정상적인 근관(신경)치료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았으며 불가피하게 이를 빼는 경우도 있었다. 좀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염증조직이 많이 모여 있을 수 있는 뿌리 끝을 수술적인 방법으로 잘라내고 거꾸로 뿌리 끝을 근관(신경)치료를 하여 좀 더 많은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이것을 **치근단 수술**이라고 한다.



수술 전

신경치료를 하였으나 뿌리 끝에 염증이 크게 존재하고 있다.



수술 후

뿌리 끝을 잘라내고 역충전을 시행하였으며, 염증이 잘 치유된 소견을 보인다.

Saving
Natural
Tooth

2. 강압 맹출술 (Forced Eruption)

잇몸 안쪽에서 뿌리가 부러진 경우 근관(신경)치료를 시행 한 후 뿌리 내에 갈고리를 걸어서 양 옆 치아에 고정된 철사를 통해 교정력을 이용하여 뿌리를 잇몸 바깥으로 끌어 낸 후 약 3주 정도 뿌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고정술을 시행하고, 뿌리에 기동을 세워 보철물을 올리는 방법을 **강압 맹출술**이라고 한다.



시술 전

기존의 보철물이 있는 상태에서 보철물과 함께 이가 부러져 내원하였다.



시술 중

보철을 하기에 부적절하여 교정장치를 사용해서 잇몸 밖으로 뿌리를 끌어 올리고 있다.



시술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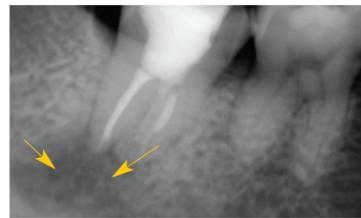
잇몸 바깥으로 노출된 뿌리에 기동을 세우고 보철을 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3. 치아 재식술 (Intentional Replantation)

정상적인 근관(신경)치료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치아를 뽑아서, 뽑은 치아의 뿌리 끝을 잘라내고 거꾸로 근관(신경)치료를 시행 한 후 원래의 자리에 다시 위치시키고 치아를 일주일 정도 고정시키고, 보철을 시행할 수 있다.

물론 일반적인 수술 방법은 아니지만 수술을 하기에 해부학적으로 중요한 구조물이 있거나 뺨 쪽으로 빠가 너무 두꺼운 경우, 재근관(신경)치료를 해야 하지만 기존의 재료가 제거되지 않는 경우, 근관(신경)치료를 해야 하는데 도저히 입을 벌리지 못하는 경우, 잘 치료가 되었는데도 지속적으로 불편감이 남아 있어서 뿌리가 금이 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술식이다.



뿌리 끝에 염증이 있고 다시 신경치료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치아가 부러지지 않게 잘 발치하였다.



뿌리 끝을 신경치료하고 역충전하였다.



치아를 재위치시켰으며 뿌리 끝의 염증은 잘 치유된 소견을 보인다.

■ 자연치아를 살리는 다양한 치료법들은 치의학적으로 검증된 치료 방법이지만, 환자들의 치료에 대한 인식 부족, 향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대처 등에 있어서 결코 쉽게만 생각하고 접근할 치료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 또한 시술을 위한 기본적인 치료 장비의 준비와 완벽한 소독, 숙련된 치료기술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꼭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시술 조건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마지막으로 고려 해 볼만한 치료 방법이라 하겠다.

■ 그리고 환자의 구강위생 상태, 치료에 대한 이해도, 생물학적 원칙에 대한 이해, 기능 회복을 위한 의지 등이 합쳐진다면 여러 가지의 난관들을 조금씩 헤쳐 나가고 성공적인 치료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Saving
Natural
Tooth

Saving
Natural
TOOTH

SIDEX 2008, 1만여 치과인 '대성황'

서울치과의사회 창립 83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 및 제 5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조직위원장 정철민·임학래, 이하 SIDEX)가 지난 6월 27일부터 3일간 코엑스 대서양홀과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됐다. 사흘동안 1만여 명의 치과인이 학술대회장과 전시장을 찾아 최신 임상술식과 첨단 기자재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등 대성황을 이뤘다. 총 44명의 연자가 참여한 종합학술대회는 비가 오락가락하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강연장이 학술대회 열기로 넘쳐났다. 특히 720석 규모의 하모니볼룸에서 진행된 라이브서저리, 상악동과 엔도 관련 주제로 진행된 심포지엄은 장시간 연이어 강연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자리를 뜨는 청중을 찾기 힘들 정도로 열기 또한 뜨거웠다. 기자재전시회에는 사흘 간 7,690명이 방문, 참가한 전시업체 대부분이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특히 외국 바이어들도 상당수 눈에 띄었으며 SIDEX 조직위원회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해외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어서 내수와 수출이 혼합된 한국형 국제전시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그동안 SIDEX는 국제전시회를 표방하면서도 치협 종합학술대회가 있는 해에는 개최하지 못해 반쪽 운영이 불가피했으나, 서울치과의사회 최남섭 회장이 SIDEX 전야제인 서울나이트 행사에서 'SIDEX의 매년 개최'를 공식 발표함에 따라 진정한 국제대회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무료치과진료소 '치아사랑센터' 개소

영등포구치과 의사협회(회장 최인호)가 7월 4일 차상위계층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무료치과진료소인 '영등포 치아사랑센터'를 개소했다. 여의도 유진투자증권빌딩 16층 보험공단 영등포북부지사에 설치된 센터는 약 50㎡(15평) 규모로 유니트케어 2대가 설치된 진료실, 엑스레이 촬영실, 컴퓨터실, 상담실 등을 갖추고 있다. 진료는 보험공단에서 선정한 지역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이틀에 걸쳐 실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치과의사상을 심어주고 주민 구강건강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여치 '천사들과 함께 한 하루'

서울여자치과의사회(회장 최영림·이하 서여치)가 7월 20일 서울시립 소년의 집을 방문, 아이들과 주말 하루를 함께 보내며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서여치는 그동안 소년의 집을 방문해 의료봉사를 펼쳐왔으나 지난해부터 외출행사를 진행해 소외된 아이들과 소통하며 인기를 전달하고 있다. 이날은 회원들이 오전과 오후로 조를 나눠 아이들과 함께 서점에 방문해 책을 선별해주고, 영화관람, 자전거 타기, 과학체험관 관람 등의 문화체험과 놀이 시간을 가졌다.



스마일재단, 사랑의 스케일링

스마일재단(이사장 이금호)이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사랑의 스케일링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랑의 스케일링 행사는 일반참여와 치과참여로 진행, 일반 시민은 스마일재단에 5만원을 기부하고 받은 참여증으로 참여치과에 방문해 추가 비용 없이 스케일링을 시술받을 수 있다. 참여치과는 참여증을 소지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스케일링을 시술하면 된다. 기부금은 전액 저소득 중증 장애인의 치료치료에 쓰인다.



노래하는 치과 의사 황병기, 치아송 발표

치과 의사에서 가수로 데뷔한 황병기 씨가 지난 6월 동요풍의 구강건강 캠페인송인 3·3·3 치아송을 제작, 발표했다. 치아송은 황병기 씨가 직접 작사·작곡한 곡으로 하루 3번, 식사 후 3분 이내, 3분 동안 치아를 닦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앨범은 각각 3곡씩 수록된 캠페인버전과 어린이버전으로 나온다. 황병기 씨는 치아건강 캠페인송 전국 거리공연을 추진하고 인터넷 상의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김방수 공보위원



*박인임 공보위원



*강명신 공보위원



*조정근 공보위원



*유영주 공보위원



*이한주 공보위원

- *김방수 / 편집후기를 쓰라 하니 기여한 바가 없어 조금은 쑥스럽까지 합니다. 더운 여름 동안 이번 가을호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호에는 꼭 밥값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무척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 *박인임 / 받아만 보다가 쓰려고 하니 그동안 애쓰셨던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이 소중하게 바뀐 저의 모습을 보며 모든 일은 주인의식을 가지며 하는 것이 복됨을 느끼게 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멋드러지고 풍성한 가을을 기대해 봅니다.
- *강명신 / 아직 '즐치' 라고 줄여 부르기에는 인연이 짧고 기여한 부분도 적었습니다. 멀리서 보는 것과 가까이서 보는 것은 과연 달랐습니다. 가까이서, 다는 아니어도 잡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니 참으로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던 분들께 송구스럽고 감사드립니다.
- *조정근 / 처음으로 공보위원회에 들어와서 여러 해 일을 해오신 선생님들께 많이 배우고 영화배우 황정민 씨의 말처럼 그저 잘 차려진 밥상에 손가락 들고 맛있게 먹었을 뿐이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정말 행운입니다.
- *유영주 / 처음이라 조금은 낯선 과정이었지만 반가운 여러 선생님들과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하는 '즐거운 치과생활'을 기대해 봅니다.
- *이한주 / 잘 차려진 밥상에 수저만 올려놓는 것 같아 송구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드는 '즐치' 가을·겨울호입니다. 처음으로 잡지라는 매체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 탄생하기까지의 많은 노력과 정성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부디 '즐치' 가을·겨울호가 여러 선생님들과 가족과 같은 환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잡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즐거운 치과생활'로 첫 인사를 드립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달리고, 들고, 과녁을 맞추고, 물살을 가르고, 힘찬 서비스를 하는 멋진 젊은이들을 보다 보니 어느새 계절이 바뀌어 있네요. 내심 풍성한 가을에 걸맞는 좋은 내용들로 가득 채워진 책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함께 만드는 잡지, 함께 보는 잡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치과의사들이 함께 공리해서 만들고 치과의사와 치과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보려고 애썼습니다. 사실 그 동안 결눈질로만 봐왔던 일을 막상 시작하고 보니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치과진료와 마찬가지로 책을 엮는 일도 하나하나 세심한 손길이 필요하더군요. 그나마 이렇게 책이 나오게 된 것은 모두 한 마음으로 애써주신 공보위원들을 비롯한 우리 편집팀들 덕택입니다.

이번호부터 '건강일생'을 주제로 연재를 기획해서 그 첫 번째로 '영유아기의 구강관리'를 준비했습니다. 전 일생을 건강한 치아로 지내기 위한 기초를 어떻게 다져야 할까 정리하면서 지면에 자세히 실리진 않았지만 태아기 때부터 적절한 영양섭취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엄마의 양치질 습관처럼 작은 습관까지도 뱃속의 아이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원고를 집필해 주시고 함께 작업해 주신 공보위원들, 취재에 가까이 응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여러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림픽에서 매 경기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처럼 자기 분야에서 값진 맘을 흘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공보이사 / 편집인 이 민 정

3M Lava™ 지르코니아 크라운 & 브릿지

가지런하면서 하얗게 빛나는 치아! 아름답고 환한 미소를 갖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 치아처럼 자연스러우면서 예쁘고 튼튼한 치아를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바람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 3M에서는 탁월한 심미성과 생체친화성, 그리고 최적의 강도를 자랑하는 인공치아를 만들어냈습니다. 3M의 혁신기술로 탄생한 3M Lava!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3M 라바는 어떤 경우에 하게 되나요?

치아가 심하게 깨지거나 충치가 심한 경우 치아의 겉면을 인공치아로 씌워주게 됩니다. 이런 경우 과거에는 금이나 합금을 사용한 금속 도재관을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속 도재관은 자연치의 모양이나 색을 정확히 재현하기가 어렵고, 생체친화성이 떨어져 시술 후 잇몸 주변이 검게 보이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심미적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올세라믹 소재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금속 도재관에 비해 강도가 좋지 못해 사용 중 깨지기가 쉽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심미성과 강도! 이 두 가지가 바로 자연치에 가까운 인공치아를 제작하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3M Lava는 이 두 가지 숙제를 동시에 풀어냈습니다. 라바는 강도가 뛰어난 전치부(앞니)는 물론 구치부(어금니)에도 깨짐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특유의 심미성과 생체친화성으로 자연치라고 해도 믿을 만큼 아름다운 인공치아를 만들어냅니다.

3M 라바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나요?

3M 라바는 지르코니아라는 재료를 사용하는데, 지르코니아 소재는 자연스러운 투명도와 뛰어난 색 재현력으로 가장 자연치에 가까운 인공치아를 만들어냅니다. 지르코니아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인공관절로도 사용되고 있을 만큼 뛰어난 강도를 지닌 생체친화소재로서, 오랜 임상기간을 통해 체내에서의 안정성 또한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생체친화성 고강도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되는 3M Lava는 기존의 금속 소재 보철물에서 나타났던 잇몸의 변색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예방하는 동시에, 올세라믹 보철물이 해결하지 못했던 뛰어난 강도로 인해 오랜 기간 깨짐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3M 라바는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나요?

치과에서 환자의 구강상태를 본뜬 치아 모델을 3M Lava Center로 보내면, 3M Lava Center에서는 첨단 컴퓨터 장비를 사용하여 자연치와 같은 정교한 인공 치아를 디자인하고 제작합니다. 그러면 치과에서는 3M 라바 센터로부터 완성된 인공치아를 받아 환자의 구강 내에 시술하는 것으로 모든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환자는 총 두 번 치과를 방문하게 되며, 기간은 일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자신감 있는 미소를 찾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옆에는 항상 3M Lava가 있습니다.

